

사단법인 고요한소리
중도포럼 2018

중도_{中道}와 종교_{宗教} 다시 돌아보다, 종교

일시 2018년 10월 13일(토) 13:00~17:00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조계사 경내)

주최 (사)고요한소리

후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마음공부전문방송·유나
www.una.or.kr

행사순서

- 13:00~13:30 접수 등록
축하공연 [김광석(기타리스트)]
개회인사 [하주락 대표]
내빈 소개
축사 [정목 스님, 진명 스님]
삼귀의·반야심경 봉송

중도와 종교 - 다시 돌아보다, 종교

- [좌장 - 미산 스님]
- 13:30~13:35 청법가, 입정
- 13:35~14:20 활성 스님 발제 법문
담마와 아비담마
- 종교 얘기를 곁들여서
- 14:20~14:40 휴식
- 토론자 발표
- 14:40~14:55 1.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 과학시대 불교 인간관과 생태보살 [최종석 교수]
- 14:55~15:10 2. 4차 산업혁명시대 종교와 종교학의 필요성 [김재영 교수]
- 15:10~15:25 3.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
- 정의正義가 중도中道이다 [이정배 목사]
- 15:25~15:40 휴식
- 15:40~17:00 종합토론
- 17:00~17:05 사홍서원
- 17:05~17:10 감사인사 [변영섭 대표]
- 17:30~ 저녁공양
-

차 례

중도포럼 2018을 열며	4
축사	
자신을 섬으로 삼아 [정목 스님]	6
‘중도포럼 2018’을 진심으로 감축드립니다 [진명 스님]	8
활성 스님 발제 법문	
담마와 아비담마	9
- 종교 얘기를 곁들여서	
토론자 발표	
1.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31
- 과학시대 불교 인간관과 생태보살 -	
최종석(금강대학교 응용불교학과 명예교수)	
2. 4차산업혁명시대 종교와 종교학의 필요성	43
김재영(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3.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	55
- 정의正義가 중도中道이다 -	
이정배(목사, 현장아카데미 원장)	
〈고요한소리〉 경전읽기·책읽기 모임 안내	64
마음을 맑게 하는 〈고요한소리〉 도서	65

중도포럼 2018을 열며

〈고요한소리〉는 2017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중도포럼’을 열어 중도, 즉 팔정도의 뜻을 새겨 보았습니다. 이어서 금년에는 ‘중도中道와 종교 - 다시 돌아보다, 종교’라는 주제로 중도와 종교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교는 종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집니다. 원래 종교현상을 지칭할 때 동양권에선 ‘가르칠 敎敎’란 용어를 써 왔는데 근세에 와서 서양의 ‘릴리전religion’이라는 말이 종교로 번역 통용됨으로써 ‘교’의 뜻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와 이천여 년 전 중국을 통해 들어온 불교가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종교라면 불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수행종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믿음은 수행의 첫 단계로 중시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의 이해를 위한 예비단계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확신이 서면 믿음의 단계를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됩니다.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는 믿음·이해·수행과 관련되지만 철저한 이해를 거친 확신이 아닌 맹목적인 믿음은 불교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처님 가르침의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불자들은 미숙한 기복신앙에 안주하고 있지만 현대 과학교육을 통한 탐구심이 높아질수록 이런 미숙성은 점차로 도태될 것입니다. 더욱이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참뜻, 곧 진리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와 기독교간의 대화의 폭은 그만큼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삶에서는 경제적, 군사적 갈등은 물론이요, 종교적 가치 갈등이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죽음까지도 불사하기 때문입니다.

원초적 공포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생겨난 종교는 독선적, 배타적 신앙심을 품고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오늘날의 전 지구 사회에서 문화적 장벽은 허물어지고 있지만 유독 종교적 대립과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아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일체의 대립과 갈등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불교적 진리가 따로 있고 비불교적 진리가 따로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중도 지향적 불법佛法은 남이 주장하는 바의 타당성을 문제 삼기에 앞서 나 자신의 입장을 되돌아봅니다. 중도 불법의 이런 회광반조의 정신이야말로 자칫 종교가 빠지기 쉬운 배타적 독선성을 뿌리 뽑고 진리와 자유를 향한 개방성을 보장하는 확실한 보루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고요한소리>의 '중도 포럼 2018'이 이런 보루를 구축하고 다져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사

자신을 섬으로 삼아

〈고요한소리〉 중도포럼 2018 개최를 축하드리며

정목 스님(유나방송 대표, 정각사 주지)

〈고요한소리〉에서 작년에 중도포럼, “중도, 이 시대의 길”을 개최한데 이어 올해도 “중도와 종교-다시 돌아보다, 종교”라는 주제로 중도포럼을 마련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도의 의미를 조명하는 일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병적 요인을 치료할 치료약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고요한소리〉에서 펴낸 ‘법륜’과 ‘보리수일’, 그리고 ‘소리’ 시리즈 책자를 읽으며 부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차를 타고 달려가면 부처님을 뵈올 수 있을 것 같이 너무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고요한소리〉에서 펴내는 책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울림과 희망을 줍니다.

《부처님, 그분》(법륜 하나)에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직전의 부처님 모습은 너무도 생생하여 매번 눈시울이 젖어옵니다.

“아난다여! 그대 자신을 자기의 섬으로 삼을지니라. 그대 자신을 자기의 의지처로 삼을지니라. 남을 의지처로 기대서는 안 되느니라. 법을 섬으로 삼고 굳게 붙들지니라. 법을 의지처로 삼고 굳게 붙들지니라. 다른 어떤 피난처에도 의지하려 들어서는 안 되느니라.”(《장부》 16, 〈대반열반경〉)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는 말씀이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한문 번역 자등명自燈明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와 닿습니다. 얼마 전 방송 촬영 차 갔던 곳에서 손으로 잡으면 잡힐 듯한 거리에 있는 섬을 바라보며 문득 부처님의 유훈이 떠올랐고 무슨 의미인지 그대로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인류학자는 파시즘이나 독재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든 영토를 한 사람의 통치자가 소유하거나 소수 집권층이 장악하던 독재가 과연 다시 출현하는 일이 가능할까? 또한 국가를 위해서는 가족도 이웃도 직업도 다 희생하며 충성하던 시대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할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라며 우리는 위의 의문을 쉽게 지나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과 생명 공학의 만남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심지어 나의 느낌이나 감정까지 조종할 수 있게 된다니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 자신이 조종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큰 과제입니다. 정치·경제·군사·종교·문화 간의 거대한 장벽, 그 장벽 앞에 가로막힌 인류는 대립과 갈등의 엄청난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

불교는 중도中道라는 으뜸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바 없이,
어느 나라도 자신의 나라만이 특별하며 최고라는 독선 없이,
저마다 섬이 되도록 합니다.
중도의 길은 저마다 섬이 되어 깨닫도록 합니다.

〈고요한소리〉에서 개최하는 '중도포럼'은 최첨단 기술이 발달할수록 여러 방면으로 위협 받고 있는 인류에 한줄기 빛과 같고 망망한 대해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밤하늘 별과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고요한소리〉 회주 황성 스님과 4부대중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목 합장

축사

‘중도포럼 2018’을 진심으로 감축드립니다

진명 스님(법륜사 주지, 무형문화재 위원)

하늘이 높고 햇살이 맑은 날 거룩한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30년 세월 속으로 걸어오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고요한소리> 속으로 들어와 빛나지만 색이 없고, 우렁차지만 소리가 없는 그 속에서 영원한 귀의처 큰 스승님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먼 시간 뒤편에 서 있는 학인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 승가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부처님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 그저 가만히 가부좌하고 앉으면 후광이 빛날 것만 같았던, 그래서 무지해서 용감했던 그 시절 어디로 어떻게 갈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며 걷던 학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저 깎은 머리가 좋았던 그 초심에서 <고요한소리>의 시작을 알았습니다. 도반스님과 헌법재판소 앞을 오르며 그 첫 시작을 알았고, 인사동 어느 골목 안에서 그 큰 움직임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보리수 잎’ 하나에서 ‘법륜’ 한 권으로 발걸음이 이어져 세상 속으로 들어간 <고요한소리>가 21세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어 불자를 향기롭게 하고 사람을 아름답게 존재하게 합니다.

이 귀한 걸음에 동행하며, ‘중도포럼 2018’을 진심으로 감축드립니다!

진명 합장

발제 법문

담마와 아비담마

- 종교 얘기를 곁들여서 -

활성 스님

〈고요한소리〉 회주

1938년 출생. 1975년 통도사 경봉 스님 문하에 출가. 통도사 극락암 아란야, 해인사, 봉암사, 태백산 동암, 축서사 등지에서 수행 정진. 현재 지리산 토굴에서 정진 중. 〈고요한소리〉 회주

요약문

법法, 담마란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주시기 위해 '부처님 당신이 깨달으신 지혜의 소식을 중생이 이해할 수 있는, 중생이 쓰는 언어로 담아 낸 진리의 소식'이고 아비담마란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활용하고 또 적용할 때, 그 분상에서의 담마가 아비담마'이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새로운 아비담마가 절실히 요청되는 엄중한 시대이다.

차 례

불교는 종교인가?

종교와 지혜

담마*Dhamma*의 가르침인 불교

담마와 아비담마

불교 변천사는 바깥의 도전에 대한 대응사

새 아비담마를 기원하며

불교는 종교인가?

오늘은 정기법회 겸, 초파일법회 겸 하는 법회이니까 오늘 이야기는 초파일에 중점을 두는 게 맞겠지요. 초파일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파일이라고 하니 상당히 종교적 분위기가 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린다는 원래의 뜻도 있고, 연등도 다니니까 종교 축제의 분위기가 많이 나지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종교’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독교와 대비하면서 불교란 말을 쓸 경우에는 불교도 영락없이 종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영락없이 종교가 되어 버린다.’ 이 말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불교가 종교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 쓰고 있다는 느낌을 풍기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종교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보니 ‘신이나 절대자를 인정하여 일정한 양식에 따라 그것을 믿고, 숭배하고, 받들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정신문화의 한 체계’라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멈추는 곳은 ‘신이나 절대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불교는 부처님을 신이나 절대자로 생각한 일은 없기 때문에 종교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교에 ‘교敎’ 자가 들어 있는 탓에 흔히 말하는 종교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국교 등등 종교의 뜻이 분명한 용어가 하도 많다보니 불교의 ‘교’ 자도 어느덧 그런 식의 종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불교의 경우 ‘교’ 자는 ‘가르침’ ‘교’ 자이지,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뜻의 ‘교’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과 ‘가르침’을 구분하는 그 엄격성을 어느새 포기해 버리고 있는 거지요. 국민 중에 기독교가 몇 프로, 불교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 으레 그런 걸로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서류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겨야 할 일인지 우리 한번 꼼꼼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 당신은 종교 창시자를 표방하신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화

되는 것을 극력 피하려고 노력하셨지요. 당신의 가르침이 하나의 종교로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은 부처님으로서는 어떻게든 막고 싶은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교’, 우리가 쓰는 이 종교라는 말의 연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서양에서 종교를 릴리전religion이라고 쓰듯이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지요. 또 페이스faith라는 말도 쓰고 빌리프belief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모두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엘리아데Eliade의 종교사전²을 보니까 종교란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의 유신론적 전통에서 서양의 독특한 종교관이 형성되었으며, 거기서는 이분법적으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릴리전religion이라는 말에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는 눈, 그게 전제되어 있고 릴리전이라는 개념에는 신神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자인 신, 창조주인 신, 전지전능한 신과 그 신의 세계가 있고, 그 신이 만든 피조물로서의 인간과 인간세人間世가 있지요. 다시 말해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교는 당연히 그러한 릴리전, 즉 종교와는 연이 닿지 않습니다. 불교는 창조주로서의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을 신의 피조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스faith, 이것도 종교적 신앙이라고 이해하고 번역한다면, 역시 불교와는 연이 닿지 않습니다. 원래 불교는 신앙이 아니고 신앙 체계도 아니거든요. 또 빌리프belief도 믿음이라 이해할 경우, 그것이 어느 목사의 ‘믿습니다!!’ 하는 식의 그 믿음이라면, 그것도 불교와는 안 맞지요. 그러니까 서양의 용어들은 어느 정도 농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신을 전제로 하고 신과 인간을 대척시키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엄격

1 ‘종교’라는 말은 원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이고, 한 종宗의 가르침을 일컫던 말인데 일본에서 명치유신 때 ‘religion’의 역어로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다. ‘신앙’ 역시나 (religious) faith의 역어인 듯하다. 동양에서는 신앙체계를 지칭할 때 백백교白白教·오두미교五斗米教처럼 종宗이 붙지 않은 ‘교敎’를 써 왔음.

2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1907~1986) : 루마니아 출신의 미국 종교학자.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87.

하게 따질 것은 따져서 구분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양권에도 샤머니즘, 유교, 도교, 대승 불교, 밀교 등 넓은 의미의 종교생활 내지 신앙생활은 예전부터 있었고 그 중 밀교나 대승 불교는 신앙적인 면이 확실히 있지요. 대승 불교 경전 중에도, 예를 들어 범화경 같은 경우 다소 신앙적인 면이 있다고 보던데, 그걸 두고 대승 불교가 릴리전이란 뜻에서의 종교라고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부처를 신격화시키는 면이 있지만 신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없는 만큼 결코 서양식 릴리전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짚어보는 것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종교와 지혜

그럼 과연 불교와 종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 당신은 앞에서 말했듯이 종교 창시자를 자처한 일이 없고 종교적 지도자로 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오히려 종교를 거부, 배척하셨지요. 부처님 당신과 당신의 가르침이 종교화될까 봐 많은 신경을 쓰신 걸로 경에 나타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도라는 땅의 분위기가 굉장히 신앙적이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탄생한 불교가 그쪽 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부처님이 법法, 담마Dhamma를 당신 가르침의 뼈대로 세우신 것도 신앙화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앙적 태도를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이성적이기 보다는 감성적인 쪽으로 경도되어 버리기 쉽지요.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 종교적이야!’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성적,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기보다는 추상적이며 증명되지 않는 신이나 신성을 좇아 경도되어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경도됨이 없이 중도中道를 견지하는 건전한 인간의 자세를 ‘지혜paññā’에서 구합니다.

지혜는 이성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걸 좀 더 살펴봅시다. 부처님은 인과因果의 연결 고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십니다. ‘지혜가 중요하다.’ 하시

고 그럼 지혜의 인因은 무엇인가 하고 풀어나가시지요. 그 인과의 고리를 ‘연기緣起’라 하고 연기의 맥락을 설하신 대표적인 체계가 십이연기+二緣起입니다. 십이연기에서 제일 앞에 무명無明이 나오지요. 무명은 명明이 없음, 명이 결여되고, 바로 이 명의 결여가 모든 고타의 시작이요, 모든 고의 근본 원인입니다. 따라서 고와 고의 원인을 강조를 하실 때에는 그만큼 명, 그리고 명의 근본 원인 지혜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 됩니다. 불교 교리를 자세히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성적 요소와 감성적 요소의 차이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증장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이 두 요소를 중심으로 풀어 나갑니다.

이 문제를 불교 전통에서는 심·의·식心意識의 삼분법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파고듭니다. 식識은 인간 존재 및 윤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이연기에서 무명이 있으면 행行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식이 있으면 명색名色이 있다고 하듯이 이 식識, 윈나아나*viññāna*는 십이연기의 연결 고리 중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식’이 그 ‘분별해서 안다’는 한정적 뜻 때문에 연이生緣已生 계열, 즉 한정되지 않은 포괄적 뜻의 얇이 되고 ‘슬기 지智*paññā*’의 전 단계가 됨으로써 멸성제滅聖諦의 기초가 됩니다. 방금 언급한 ‘지知’나 ‘지智’는 의의의 도움을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意*mano*가 의도·의지의 형태로 심식心識을 바른 견해, 정견正見의 길로 밀 때 지智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식識은 윤회 분상에서 연결식으로 작용할 정도로 본성·본능적 기반 위에서 힘을 쓰니까요. 즉 심을 지배하니까요. 또 오온에선 수·상·행受想行을 연출시키는 마법사 역도 하니까요. 그 경우 수·상·행은 다름 아닌 심心の 작용이지요. 다시 식의 문제로 돌아가서, 이 윈나아나*viññāna*를 영역할 경우 보통 컨셔스니스consciousness로 옮기고 이걸 다시 우리말로 옮길 때는 ‘의식’이라 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BPS 책들을 번역하면서 의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윈나아나를 ‘의식’이라고 번역하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따릅니다. 경에 보면 의意는 마노*mano*이고 식識은 윈나아나*viññāna*로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식을 번역하면서 ‘의식’이라고 하는 경우처럼 한낱 수식어처럼 쓰일 용어가 아니고 그 자체로 불교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용어입

니다.

부처님은 이 의의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지금까지 법회에서 ‘의’의 중요성을 언급한 일이 많았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마노 $mano$, 의는 육내처六內處에선 의처意處가 되고 육근六根에선 의근意根이 되며, 이 의근 $manoindriya$ 을 잘 계발하면 지혜가 열리게 되므로, 의는 지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기에 반해 식의 경우, 지혜를 도울 수도 있지만 그 분별하는 기능은 지혜의 직관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경에서도 윈나아나는 탈피해야 하고 확인해야 할 대상인데 반해, 뿌야는 어떻게든 발전 계발되어야 할 권장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으니까요.³

그럼 의근意根을 발전시켜서 지혜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물론 그 길은 팔정도입니다. 지혜가 계발되려면 팔정도 중에서도 특히 바른 마음챙김(正念), 사띠 $sati$ 를 닦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신앙적 태도부터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로건 종교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거나 일단 뭔가 하나를 믿게 되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합리적이고 넓은 사유 자체가 봉쇄되어 버립니다.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믿는 그것이 옳으나 그르냐 하는 쪽에 치우치게 되어 버리지요. 이것을 믿어서 옳은가 아닌가? 괜 찰을까 안 되는 걸까? 잘 하는 걸까 잘 못하는 걸까? 하는 식으로 치우치게 되지요. 그리 되어 버리면 일체 사물의 본질을 따지고 그걸 더 캐내고 지혜를 계발시키게 되는 것과는 멀어져 버립니다. 그리하여 점점점점 맹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맹목성盲目性이야말로 불교에서 가장 기피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유하되 맹목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맹목성은 바로 감은 눈인데, 그런 감은 눈으로 무슨 지혜의 문이 열립니까. 눈 뜬 장님이 될 뿐이지요.

우리는 장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어떻게 해서든 눈을 또렷하게 뜨고 지혜를 자꾸만 계발해야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법法Dhamma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과 법의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써

3 Paññā bhavetabbā viññāṇam pariññeyam. 《중부》 III, 43경, p. 293.

서 법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익을 누리는 것이지요. 이익이라는 말이 속된 말 같지만 이익처럼 좋은 게 없지요. 금전적 이익이 아닙니다. 지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행복을 더 돋우어 주는 것이 진정한 이익 아니겠습니까.

담마Dhamma의 가르침인 불교

앞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적 태도를 피해야 한다고 했지요. 불교가 종교 아니면 무엇인가? 불교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불교는 법, 담마Dhamma를 가르칩니다. 곧 담마는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방금 법法, 담마Dhamma라는 말을 썼는데, 빠알리어Pāli로는 담마Dhamma이고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Dharma이지요. 다르마는 주로 '의무'를 뜻하는데 그러면 담마는 무엇인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전에도 이 자리에서 몇 번 소개했지만, 오죽 어려웠으면 유명한 불교학자인 영국의 고프리치 교수는 담마가 36가지 뜻으로 다양하게 쓰인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그 담마, 그것을 깊이 논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그 어려운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으므로 저는 일단 담마를 이렇게 규정해 봅니다. 요컨대 법, 담마란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주시게 위해서 '부처님 당신이 깨달으신 지혜의 소식을 중생이 이해할 수 있는, 중생이 쓰는 언어로 담아 낸 진리의 소식'입니다. 부처님은 붓다, 깨달으신 분입니다.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진리를 깨달으신 붓다가 당신이 알게 된 그 진리의 소식을 중생들에게 전하려고 나서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중생들에게 전하느냐. '내가 이러 이러한 것을 깨달았는데, 너희도 이것을 알고 깨달아라.' 그러면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가? 부처님으로서는 중생들이 알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체계 정연하게 세워서 가르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담마의 영어 번역어 중에 가르침teaching, 사물things, 현상phenomena, 이런 말들이 있지요. 그런 것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물이 진리의 눈에서

보면 진리의 소식이고 진리의 표현입니다. 세상에 진리의 현현顯現, 진리의 표현 아닌 것이 있습니까. 산천초목이 다 진리의 소식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작용, 심리적 작용도 어떻게 보면 진리의 소식이겠지요. 진리와 아예 관계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란 보편적이어야 하니까 만일 진리와 관계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땐 그건 진리가 아닌 거지요. 보편성, 그것도 완벽한 보편성이 진리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는 안 맞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요. 그렇게 보편적이고 시공時空을 초월한 것이 진리sacca이고, 그 진리를 담아낸 언어적 수단 방편이 담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담마는 부처님의 지혜 분상分上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이 법을 만드셨다고 표현합니다. 부처님 당신이 깨달으시고, 그 깨달으신 것을 당신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그것을 담마라 하셨으니까요. 부처님이 담마(法)를 만드신 겁니다. 또 그 담마를 길이 보존하며 정확히 누리도록 범수法數로 엮고 문법으로 체계를 세웁니다.

따라서 그 법을 부처님 외에 다른 사람은 만들 수 없습니다. 빠알리 경을 자세히 보면 부처님 제자 중 지혜 제일이라는 사리뵈다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 그 범주 안에서 그 뜻에 맞게 정확하게 법을 쓰기만 하지, 거기에 어떤 것도 자기 임의로 보태지는 않습니다. 어느 제자나 법을 쓸 때 다 그렇습니다. 목갈라나도 신통력까지 써가면서 모든 면에서 법을 활용하고 또 가르쳐요. 그러나 법에 어긋나거나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유명한 고싱가 숲에서의 아름다운 장면⁴이 나오지요. 고싱가 숲에서 부처님의 큰 제자 대 여섯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이 좋은 달밤에 이 경치에 어울리는 것이 어떤 사람일까? 각자 한번 소회를 말해보시오.’라고 사리뵈다가 제안했다지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그게 바로 이럴 때 가장 잘 어울릴 거라고 대답했다지요. 예를 들면 다문제일多聞第一 아아난다는 다문하는 그 사람이 제일 어울린다고 대답합니다. 각자가 그런 식인데 목갈라나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목갈라나는 아

4 <고싱가사알라 긴 경Mahā-Gosīngasāla Sutta>, 《중부》, 32.

시다시피 신통제일神通第一아닙니까. ‘신통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울리지요’라고 말 할 것 같은데, 목갈라나는 그러질 않고, ‘아비담마abhidhamma 문답을 하는데 조금도 담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이 유창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울린다.’라고 말합니다. 왜 신통력 제일 잘 쓰는 분이 아비담마를 제일로 칠까요? 그리고 아비담마가 담마에서 어긋나지 않음을 제일로 칠까요? 아마도 아비담마야말로 진정한 신통이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걸 볼 때 부처님 제자들의 법에 대한 기본적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아비담마를 끊임없이 논하는데 조금도 담마, 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은 참 멋지고 의미심장합니다.

담마와 아비담마

그러면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아비담마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분상에서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를 설하신 것, 그것이 담마인데,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활용하고 또 적용할 때, 그 분상에서의 담마가 아비담마이다.’ 담마와 아비담마는 그렇게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제자는 아비담마를 이야기할 수 있고, 아비담마를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끊임없이 아비담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비담마를 만드는 흐름이 불제자들 사이에서 끊어졌다 하면, 그때부터 이미 불교가 죽고 시체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불제자는 끊임없이 아비담마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비담마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요? 진리가 시공을 초월했다면 아비담마는 당연히 그 시대 그 장소, 말하자면 시공의 한계 내에서 만들어지지요. 그게 아비담마입니다. 부처님 분상에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만드신 담마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아비담마는 부처님 같은 지혜를 갖지 못한 제자들의 분상에서 중생들을 위해 시설되기에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시공의 제약을 받고 시공에 가장 충실하면서 또 시공의 요구를 가장 성실히 반영해서 담마를 해석했다면 그것이 아비담마가

되는 겁니다.

아비담마도 담마이니까 담마를 벗어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담마적 특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담마적 특성을 유지한다는 말은 아비담마가 그만큼 시공에 충실하면서도 중생에게 이익을 능히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비담마는 현실적으로 중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비담마입니다. 삼장 중의 논장論藏이 원조 아비담마인데, 말 그대로 '아비담마를 담은 바구니'이지요. 논장은 당시 부처님의 직계 제자로부터 시작되었겠지만 아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음 세대 제자들이 엮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비담마를 누가 썼는지 이야기가 분분하지요. 사리뱃다가 아비담마를 다 썼다는 말도 있으나 사실이 아닐 테고,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마야 부인에게 하신 설법을 사리뱃다가 듣고 와서 전했다는 설도 어쩐지 석연치 않아요. 부처님의 후대 제자들이 아비담마를 엮었다고 봅니다. 칠론 중 마지막 발취론發趣論은 저자가 분명하니 문제될 게 없고 앞의 논들은 제자들이 엮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부처님과 사리뱃다에 인연 지은 게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아비담마가 탄생했고 그 배경에는 당연히 부처님 제자들이 당면하고 있던 여러 현실 상황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아비담마가 창조되는데 그럼 어떤 상황이 불교사를 통해 가장 중대한 영향력을 아비담마에 끼쳤을까요.

불교 변천사는 바깥의 도전에 대한 대응사

여러분이 불교사를 읽을 때 그냥 불교 내부사로서만 읽기 쉽습니다. 불교에서 직계제자들 시대, 그 다음에 부파 불교시대, 소승 불교, 대승 불교 이런 논의를 계속하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바람직한, 타당한 태도일까요. 불교가 여러 가지 변천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즉 그때그때마다 변천의 동기를 부여하고 또 제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교가 대응하게 되는 그 도전, 그 근본 원인은 오히려 바깥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불교의 변천을

살펴볼 때 육사외도六師外道,⁵ 유물론 등이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불교와 브라미니즘과의 관계입니다. 실제로 우파니샤드로 대변되는 브라미니즘과 육파 철학六派哲學⁶을 위시한 브라미니즘의 후속편인 힌두교⁷와 불교와의 상호 접촉 관계, 이것이 불교 변천에 있어 가장 큰 동인動因이며, 자이나교 등 육사외도는 접촉은 많았겠지만 부처님과 불교교단에 크게 영향을 끼칠 정도는 못되었으리라 봅니다. 불교가 힌두교 등 브라미니즘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나타난 모습이 부파 불교⁸ 같은 것입니다. 알다시피 힌두교는 부처님 이후에 생긴 겁니다. 불교를 브라미니즘과 그 후신인 힌두교와의 관계 면에서 살펴보아야만 불교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주제는 그 방면 전공자가 아닌 제가 함부로 용훼할 일이 아니지만 문제 제기 차원에서 학자들의 논의를 담은 2차 문헌 자료들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사유해 보고자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불교는 부처

5 육사외도六師外道: 세존 당시 인도에서 활약한 여섯 철학과. 베다의 권위를 부정한 비정통파란 점이 공통될 뿐 각기 자유로이 가르침을 펼쳤다. 엄격히 계율을 지키기 위해 고행 중심을 견지한 자이나교의 니간타 나아뻬뻬따, 회의론자 산자야 베랏티뻬뻬따, 유물론에 입각한 쾌락주의자 아지따 께사감바라, 역시 유물론적 입장에서 지·수·화·풍·고·낙·영혼의 일곱 요소의 실재를 주장한 빠꾸다 캣차아야나, 도덕을 부정한 뿌우라나 캣사빠, 업에 의한 윤회를 부정하여 숙명론을 주장한 막갈리 고사아라.

6 육파 철학六派哲學: 바라문교 계통의 여섯 학파의 철학.

1. 상카학파[數論派]: 카필라(기원전 4~3세기) 창시, 수론경.

2. 요가학파[瑜伽派]: 파탄잘리(기원전 4~3세기) 창시, 요가경.

3. 미망사학파[瞽論派]: 자이미니(기원전 2~1세기) 창시, 미망사경.

4. 바이세시카학파[勝論派]: 카나다(기원전 2~1세기) 창시, 승론경.

5. 느야야학파[正理論派]: 가우타마(2~1세기) 창시, 정리경.

6. 베단타학파[吠檀多派]: 바다라야나(기원전 1세기) 창시, 베단타경.

7 힌두교: 아리안족의 종교였던 브라만교가 변천한 형태.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불교와 민간신앙이 융합하여 발전, 정립된 것이 힌두교이다.

8 부파 불교部波佛教: 석가 및 직계제자 시대의 초기 불교를 계승하고, 대승 불교와 병존·대항해서 인도에서 발전한 불교. 신흥의 대승 불교 측에서는 '소승 불교'라 하지만, '부파 불교' 또는 '아비담마 불교'임. 석가 열반 후 100년경(기원전 3세기), 불교 교단은 계율이나 교리의 해석상의 의견 대립에 의해 보수적인 상좌부와 진보적인 대중부로 분열됨. 이후 분파를 거듭해 상좌부계 11부와 대중부계 9부파의 소위 '소승 20부'가 성립됨.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님의 지혜와 자비심에 의지합니다. 부처님의 천재성은 인도에서 참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법도 당연히 큰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기 위하여 논리 정연하게 다듬으신 빠알리 어법 역시 인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산스크리트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산스크리트어는 부처님 후에 나온 겁니다. 그 이전부터 부처님 시대까지 쓰던 베딕 산스크리트어라는 게 있었는데, 브라만들이 신을 예배 찬탄하고 희생제를 거행할 때 쓰던 언어라 특수층에 의한 특수 용도의 특수 언어입니다. 특수 언어 나름의 어법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어법이란 것이 원래 언어의 질서이고 따라서 그 질서는 보편성을 지향해야 할 텐데, 베딕은 신과 브라만들 사이에만 통용되어야 하므로 발음이나 문법도 자연히 신비롭고 난해해서 아무나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지요. 따라서 고대 인도의 문헌인 《베다Veda》나 《우파니샤드Upanishad》는 일반인을 향한 불교 경전인 니까야⁹의 빠알리어 등과는 문법 체계에서 같을 수도 없고 또 같아서도 안 되겠지요. 사실 빠알리 경전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 인간의 소리로, 그것도 일반 대중을 향하여 조리 있게 논리 정연하도록 어법을 다듬으신 게 분명하며, 이 점이 특히 당시 지식사회의 확대 팽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봅니다.

부처님이 직접 설하시고 아아난다가 기술한 것으로 전해지는 빠알리 오부 니까야⁹의 특성 중에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논리성이 주목됩니다. 그런데 삼장^{三藏} 중에 논장이야 물론 부처님 직설이 아니고, 율장^{律藏}의 경우도 어투와 어법은 니까야와 비슷한데, 그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율장은 딱딱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지지요. 또 어떤 점에선 마치 사법부의 판례집 같고 거기선 부처님도 사생 자부의 면모보다는 엄격한 판사 처럼 보여집니다.

삼장 중에 경장^{經藏}의 장부 앞부분의 10경도 계^戒를 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9 니까야⁹nikāya: 빠알리 경장. 경장은 오부^{五部}로 분류되는데, 장부^{Dighanikāya}, 중부^{Majjhimanikāya}, 상응부^{Saṃyuttanikāya}, 증지부^{Ariguttaranikāya}, 소부^{Khuddakanikāya}이다.

부처님의 계에 대한 원래의 입장이고, 당시 교단에 입문한 사문들의 진지한 구도 자세를 상상해 볼 때 율장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교단이 흥성하여 흐트러진 기풍이 생겨나기 시작한 후에 비로소 제정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경장의 경우 후대의 첨삭이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불설의 근본을 훼손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부처님의 원음이라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경장을 통해 이로理路 정연하게 논리 체계를 세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도에서 참다운 의미에서의 ‘문법’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처님 당신이 지혜로써 담마를 전하기 위하여 제일 고심한 게 어법, 즉 문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법을 만들고 다듬어서 아주 정연하게 의사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브라만들의 주먹 권 손, 핵심을 주먹 속에 감추어 뭉으로써 신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던 방식과 달리,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법의 소식을 알아차리게 만들려는 활짝 편 손이자 넘치는 자비심의 발로였지요. 그것이 인도에 매우 넓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당시 엘리트인 많은 브라만들이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귀의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브라만 계급이 크샤트리아 계급인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쨌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카스트가 지배하는 그 계급사회에서 브라만들이 자기네보다 낮은 계급으로 치부하는 크샤트리아 계급인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부처님의 감화력이 위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부처님이 문법을 만드시고, 그걸 수많은 브라만들이 와서 배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승단에 귀의했던 많은 브라만들이 퍼져나갑니다. 승단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속퇴를 하고 브라만 세계로 귀속하여 활약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요? 특수 언어를 위한 문법이 아닌 보다 보편적인 언어문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런 관점이 학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 생각해봅시다. 부처님이 너무나 좋은 법의 논리 체계를 문법적으로 세우셨으니까, 비법秘法을 벗어난 개방문법에 목말라 있던 브라만들이 그걸 배워 돌아가서 그러한 문법을 그들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에 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여기 빛나는 광명이 있는데, 광명 쏘인 사람이 가서 그 광명 소식을 전하고 활용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빠알리어 문법에 영향을 받아 드디어 빠아니니Pāṇini의 산스크리트어 문법(기원전 350년경)이 나오게 된 게 아닐까요. 빠아니니는 부처님보다 후대의 사람입니다. 빠아니니 문법이 나오고 난 후, 문법의 틀에 엄격하게 얽매인 ‘빠아니니의 산스크리트Pāṇinic Sanskrit’,¹⁰ 소위 고전 산스크리트어Classic Sanskrit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산스크리트어를 가지고 브라만들이 《라마야나Rāmāyana》나 《마하바라타Mahābhārata》나 하는 오늘날까지도 인도 힌두 문화의 기축을 이루는 문학 작품을 다듬습니다. 부처님 영향을 받아서 문법까지 갖추게 된 산스크리트어라는 언어가 생겼으니까, 그 언어를 가지고 그야말로 그럴싸하고 멋진 작품을 창작하기에 이른 거지요. 브라만들이 문학 작품을 잘 다듬어 활용하니까, 그 굉장한 감화력에 불교에 끌렸던 일반 대중들까지 따라서 돌아가는 회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대학교수들이 주로 브라만입니다. 정부에서 각 계급에 고루 배분하려 법으로까지 노력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브라만들의 사상적, 교육적, 종교적인 영향력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돌아가지요. 《라마야나》나 《마하바라타》가 불교의 《자아따까Jātaka》보다 훨씬 재밌거든요. 《자아따까》는 단편 모음인데 비해 《마하바라타》는 재미있는 장편 대하소설이지요.

그 결과 브라마니즘이 불교의 영향을 엄청나게 흡수하여 자기 갱생의 근원으로 삼아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요. 마침내 육파 철학六派哲學이 나오는데, 이 육파 철학 같은 것은 논리적 기본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령 구전口傳으로 내려오던 요가파의 경전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잘 다듬어져서 불교 니까야처럼 근사한 경전이 되었습니다.

10 Winternitz, 《History of Indian Literature》, vol. I. p. 38.

이처럼 브라미니즘의 새로운 갱생이 낳은 것이 바로 힌두이즘입니다. 산스크리트어라는 언어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문학과 철학, 마침내는 힌두교라는 종교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리하여 인도의 문화 풍토가 결정적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불교에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불교에 귀의했던 브라만들이 대거 돌아감으로써 불교는 엘리트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가 쇠퇴하지요. 쇠퇴해가는 과정에서 승가의 계궤도 무너지고, 학문적인 창조성도 떨어지게 되면서 소위 불교의 여러 말기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는 불교 내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운동이 일어나지요. 그 운동들로 인해 이른바 부파 불교 部波佛敎가 생겨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불교사를 다시 한 번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어떻게 보는가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파 불교니 소승이니, 대승이니 하는데, 이 모두가 사실은 브라미니즘의 도전을 당면하여 불교의 쇠퇴를 막아내려는 참으로 안타까운 노력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대승 불교까지 나왔으나 결국은 기본적으로 엘리트 층원이 안 되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끝납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니라 아비담마의 창조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비담마란 부처님이 설하신 법, 담마를 변천하는 세계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체계화 시켜서 어떤 언어로 담아낼 것인가 하는 노력인데, 그러한 논리의 분상에서 보면 아비담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직후의 시대가 만들어낸 아비담마가 바로 논장 칠론七論이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청정도론》은 서기 5세기경의 남방 아비담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탈도론》, 《청정도론》이 나오고 한참 후에 《섭 아비담마의론》이 나오기에 이르렀지요. 거기서는 이미 불교의 호방한 맛, 큰 맛은 사라지고, 세세하고 좁디좁은 학문적 경향으로 되어버려 창조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인도에서 끝나게 됩니다.

새 아비담마를 기원하며

한편 대승 불교가 중국에 와서 나름대로 큰 발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정점을 이룬 분이 지의智顓 천태대사天台大師(538~597)인데, 그분은 나름대로 대승 불교를 중국화시키는 창조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천태대사가 창조적으로 노력을 했으니 불교가 대단히 중국적이고 중국식으로 교학적이 되었습니다.

너무 교학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수행하는 데 그 많은 복잡한 교학이 뭐 필요한가, 좀 놓자, 논리는 좀 그만 두자, 부처님 가르침이 마음 닦는 것이라면 그럼 뭐 마음부터 한번 닦아 보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위 불립문자不立文字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참구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의 대표가 되는 분이 육조六祖 혜능慧能대사(638~713)입니다.

혜능대사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식꾼이라고 전해오지만, 그건 교학적 측면이 강조되는 시절이다 보니까 부풀려진 것 같아요. 그 스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학문에 조예造詣가 깊은 것 같아요. 재미있게도 천태대사가 나온 지 꼭 백 년 만에 육조 혜능대사가 나와서 중국에서 불교가 창조적 변신을 합니다. 그 결실이 선종禪宗 불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원효元曉대사(617~686) 같은 분이 나오셔서 창의적인 노력을 했지요. 대승 경전의 교학을 논하면서 여러 저술도 남기고, 저자거리에 가서 노래도 부르는 등 갖은 방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민족은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 모방하는 정도에 그친 면이 큼니다. 원효스님 저술마저 중국 불교의 산품으로 간주될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 새로이 불교를 해석하여 그 시대 그 장소에 맞는 이렇다 할 아비담마가 나오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불교의 살림살이가 빈약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촌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아비담마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엄중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뿌리 깊은 전통을 지닌 한국 불교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불법을 이 시대의 지도 가치로 살려내고 그리하여 새롭고 창조적인 아비담마를 내놔야 합니다.

이 시대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아비담마를 창조하는 노력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아비담마를 통하여 부처님과 인류에게 빛 갠기 시대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문화적 신세를 많이 졌으니 이제 우리도 갠 때가 됐지요. 우리 민족도 각계각층에서 빛 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먼저 문화 활동에서 시작되게 해야겠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노력이 계속되고 좀 더 심화되어 체계성과 논리성 그리고 보편성을 지녀서 이 시대의 창조적인 아비담마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아비담마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아비담마를 창조하는 노력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는지 이제 한국도 ‘해동海東’ 한국을 벗어나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그 서막을 열고 있지요. <고요한소리>도 부처님과 인류에게 빛 갠 길에 동참하기 위하여 보편성을 지닌 아비담마를 창조해야 한다는 좀 큰 뜻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고요한소리>가 부처님 원음을 알리려고 어떤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서 나름대로 애를 써왔습니다. 우선 인프라 개선이 급선무라고 느꼈습니다. <고요한소리> 시작할 때, 당시 우리나라 불교 책이 탈자, 오자, 편집, 인쇄, 제본 모두가 매우 조잡하고, 값도 비싸고, 또 한자투성이어서 이런 걸 고치고, 한글세대에게 맞는 출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요한소리> 출판물이 그런 면에서 저가격, 고품질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특히 운문에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근본불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BPS 책자들을 번역 소개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지요.

그런 작업은 빠알리 경의 존재도 잘 모르던 시절에 빠알리 경을 소개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마침내 여러 스님들과 불자들이 빠알리 경을 공부하러 유학을 다녀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불과 30년 만에 개인의 노력으로 빠알리 경을 두 질이나 번역해내는 등 획기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이 부처님 원래 가르침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가 충만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창조적인 단계로 발전하여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고요한소리>에서 ‘소리’ 문고가 나오는데, 그건 여기 범회에서 한 이야기를 엮은 것입니다. 언젠가 근본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제

대로 해서 외국에 퍼고자 합니다. 외국에서도 읽히게 되면 한국의 근본불교 연구 성과가 더 널리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아비담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짚어 보았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아비담마는 어떤 것일까요?

종교든 신앙이든 믿음이든 어떠한 종교성도 배제하고 순수하게 진리 자체를 추구하면서 이 시대의 중생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이 아비담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즈음 새로 일어나고 있는 과학도 넓은 의미에서 아비담마라고 봅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과학 역시나 진리를 추구하는 아비담마 운동입니다. 이 시대에 진리를 추구하는 노력이니깐요. 물론 응용과학 분야가 주를 이루고 상업적인 면이 지배적이지만, 그래도 서양에서 양심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역시 과학자들이라고 봅니다. 순수과학자들이 진리를 추구하려는 노력, 그것은 아비담마적 노력이라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인 언어로 과학적 방식으로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아비담마이지요. 그렇다고 과학이 하는 아비담마도 아비담마니까 불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와 과학은 추구하는 진리의 범주가 아직은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적 아비담마를 창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볼 때, 과학적 아비담마와 불교적 아비담마가 서로 겨루기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해서 어떤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빚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새로운 아비담마를 빚어내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 과학적 아비담마를 어떻게 불교와 접목시킬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최근 미산스님이 카이스트에 '명상과학연구소'를 마련하고 '하트스마일 명상HST' 운동을 펴고자 노력하시는 것도 불교와 과학을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참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아비담마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실로 엄중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범상치 않습니다. 과거 우리가 살아 온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야말로 스마일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불신시대를 살고 있

지 신뢰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자식들에게 ‘정직하라, 참되어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 속이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라고 법에 있는 말 그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지요. 오히려 요새는 ‘남 믿지 마라, 낯선 사람 오거든 경계하라’라는 식으로 조심시켜야 하는 불신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고 부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 세상살이가 어떻게 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 교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 포교 문제도 이 사회에선 큰 딜레마입니다. 아무런 독자적 사유 능력과 판단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종교적인 성향을 주입시키는 것은 그들을 세뇌하고 맹목화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들에게 불교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교육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린이 교육 문제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초유의 대변혁에 당면하여 모든 기존 가치관과 사고체계들이 존립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종교들의 경우가 더 우심尤甚합니다. 이럴 때엔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과학 기술계와의 대화가 필요할 텐데 기존 종교들은 이 면에서 난관에 봉착합니다. 단 불교만은 예외입니다. 중도中道와 합리주의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실체입니다. 현재 상황이 인류에게 위기로 변질된다면 그땐 더욱이나 불교의 역할이 커질 것입니다.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하지요. 물론 이때 종교라는 말은 ‘마루 종崇’ 자의 ‘근본적 가르침’을 뜻하지요. 불교가 지혜를 중요시하는 만큼 불교는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계발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천착합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 평등과 평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조금은 어둠이 스러져갈 징조도 나타나고 있지요. 사람답게 숨 쉴 수 있고 살게 되겠다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희망이 생긴다는 건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드디어 불교가 불교답게 부처님 가르침인 법, 담마를 논하고, 이 시대를 위한 아비담마를 창조할 수 있도록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는 증거라 봅니다. 불교는 편안함과 안온함이어서 절박함이나 긴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본질적으로 불교는 평등과

평화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진리에 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진리를 논하는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겪어야 하는 온갖 애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난관을 넘어서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불자들의 과제이고 새로운 아비담마를 창조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풀어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창조적인 아비담마의 창발은 부처님 가르침, 담마를 향한 스님들과 불자들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염원이 나날이 커질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정진합시다!

포럼 좌장

미산 스님
상도선원 선원장

백양사에 출가한 이래 전통 교학과 수행에 전념해왔다. 동국대학교 선학과에서 공부한 후 더 넓은 현대불교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스리랑카와 인도를 거쳐 초기불교 연구의 중심지인 옥스퍼드대학교 동양학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학교 세계종교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상도선원 선원장이며, KAIST 명상과학연구소 소장이다. 힘들고 지친 현대인들을 맑고 향기로운 삶으로 안내하며 수행불교와 실천불교를 뿌리내리는 일에 정진하고 있다. 특히 현대인을 위한 자비명상 프로그램인 하트스마일명상을 개발하여 누구나 일상에서 자비 행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서와 공저로는 《초기경전 강의》《마음》《행복》《자비》, 역서로는 《일상에서의 호흡명상, 숨》《호흡이 주는 선물》 등이 있다.

토론자 발표

1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 과학시대 불교 인간관과 생태보살 -

최종석

금강대학교 응용불교학과 명예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 종교학과 석사, 박사 취득,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사회교육원 교수, 금강대학교 응용불교학과 교수 역임, 현재 금강대학교 명예교수

요약문

과학격의불교 시대의 불교 인간관의 새로운 해석과 육바라밀의 생태적 해석을 통하여 이시대의 불교가 지향할 점을 함께 고민한다.

1. 과학격의 불교의 가능성과 필요성

종교는 사회변화와 문화형성에 주된 원인으로서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 종교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정립을 해야 하는 세속화를 요구받게 된다. 이는 종교가 사회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종속변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과학시대의 종교는 사회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독립변수의 역할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따라 종교 내부에서 다양한 변용을 허용하는 종속변수로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해야 될 것이다.

과학시대의 종교는 교리체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요청받고 있다. 뇌과학에서는 영혼을 두뇌활동과 신체활동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입장인 만큼, 뇌과학의 발달은 서구종교의 이원론적 인간 영혼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공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복제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면 불교의 윤회와 업에 대한 진지한 해석을 요구할 것이다. 이처럼 기존 종교의 기존 교리체계는 전통적 해석과 과학적 연구성과 사이에서 균형을 잃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영혼이나 내세에 대한 종교 교리의 해석이 오로지 종교 안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그 해석의 지평이 자연과학적 연구 성과와 융합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과학시대의 종교는 비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모습을 벗어나는 탈신화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이다. 현대과학에 무관심하던 종교는 이제 과학적 성과를 포괄하는 은유와 상징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결국 과학시대가 성숙될수록 종교와 과학은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 대결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에서 만남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종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하게 변화

하고 있다. 서양의 과학문명의 피폐를 해결하는 방안을 동양의 종교나 사상에
서 찾을 수 있다는 시각은 이미 오래전에 대두되었다. 그러나 동양종교가 구체
적으로 어떤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그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의 종교가 자연과학의 도전으로 많은 변화를 가
져온 것처럼 동양의 종교도 과학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막연
하게 서구문명의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동양종교 속에 있을 것이
라는 기대감에만 머물러 있다면, 다시금 시대감각에 뒤떨어지고, 시대적 요청
을 저버리거나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과학시대의 불교는 비의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과학적으로 대응하여 과학적인 성과를 포괄하여 과학적인 은유와 상징을 펼치
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교를 과학격의불교라고 부르고자 한다.
과학격의불교는 과학적으로 불교를 해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적극적으로 과학적 연구성과의 해석에 가담하고 그 해석의 근거를 불
교의 가르침에서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과 불교의 창
조적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격의불교라는 말의 ‘격의格義’는 불교를 노장철학의 개념과 용어들을 이
용하여 이해하려는 초기 중국불교의 이해방식을 말한다. 종종 격의불교는 불
교의 고유성을 왜곡시킨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격의는
언어의 개념해석의 차원을 넘어서 불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했으며,
중국 문화와의 만남을 통하여 선사상을 배태시키고 중국적 불교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오히려 격의불교는 불교와 노장철학의 창조적 만남이었고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된 것이다.

불교와 서구과학과의 본격적인 만남은 20세기에 들어서 이다. 물론 종교는
과학이 아니다. 종교는 과학으로부터 답을 들을 수 없는 인간의 궁극적 문제인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
교는 신비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면이 있어도 그것을 크게 문제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시대의 종교는 과학적 성과를 포용하는 종교이어야
할 것이다. 불교의 기본 교리체계인 연기론은 철저한 인과율에 바탕을 두고 있
기 때문에 과학적이다. 자연과학과 상치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적다. 따라서

과학시대에 불교와 과학의 만남을 새로운 격의불교라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불교가 과학시대를 선도하는 종교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과학시대의 불교는 과연 어떤 변화를 스스로 모색해야 할 것인가? 과학격의불교의 성립 가능성은 이미 요청받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학시대에 과학격의불교가 정작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과학시대에 불교에게 부과된 새로운 종교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심리학의 발달과 뇌과학과 신경과학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종래의 인간지능의 범주를 한층 더 확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지 지능 IQ(Intelligence quotient)과 90년대 중반부터 다니엘 골드먼에 의해 제기된 감성지능 EQ(Emotional quotient) 외에 '제3의 Q'가 있다고 한다. IQ가 주로 지적, 이성적 지능으로서 논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지능이고, EQ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고통이나 즐거움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지능인 반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영성지능으로 불리는 SQ(Spiritual quotient)는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려 할 때 사용하는 지능이라는 것이다.¹

SQ, 영성지능은 인간의 행동과 삶을 의미 있는 관계성 안에서 고찰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며, 주어진 상황의 한계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갖게 하면서, 스스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즉 SQ는 IQ와 EQ가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바탕이 되어 주는 지능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불교의 인간관인 오온설을 서구의 심리학이나 인지과학과 대비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신체인 색온色蘊(rupa, material composition)은 물질(지·수·화·풍), 육체(육·골·액·기 등)로 이루어졌다. 인간구성의 하드웨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마음을 구성하는 것이 나머지

1 20세기 초반 인지적 지능인 IQ는 논리적인 문제나 전략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지능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를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검사들은 사람을 IQ라고 알려진 지능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류하는 수단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다니엘 골먼 Daniel Goleman은 감성지능EQ이 IQ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신경학자와 심리학자들의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발표하였다. 참조, 도나 조하, 이안 마셜(조혜정 역), 《SQ 영성지능》, 룩스, 2000, 15~16쪽.

수온受蘊, 상온想蘊, 행온行蘊, 식온識蘊이다. 수온受蘊(vedana, sensing)은 인상 印象 감각을 담당하기에 고·락 등의 감수 작용과 감각이나 감정 등을 느끼는 것으로 현대 심리학의 지능 범주에서 정서지능Emotional Quotient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상온想蘊(samjna, perception)은 지각, 표상작용을 담당하여 개념화, 표상의 취상작용, 심상작용, 생각, 사고를 담당하므로 이것은 인지지능 Intelligence Quotient에 해당되고, 행온行蘊(samskara, mental formations producing character)은 의지작용이기에 행동지능Behavior Quotient 또는 의지지능Volition Quotient이라고 필자는 명명해본다. 마지막으로 식온識蘊(vijnana, consciousness)은 인식판단의 의식작용이며 그 주체인 식체識體로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담당하기에 영성지능Spiritual Quotient과 대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서구의 인간관이 이원론적 인간관에서 다원론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불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원론적 인간관을 극복한 상태이다.

영성수련이나 명상 수행을 통해 이룬 심오한 경지는 대부분 각 종교의 구원관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신비에 싸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서는 종교의 궁극적인 경지 또한 탈신비화 되고 있다. 즉, 주관적이고 신비주의적이었던 체험이 객관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경학과 뇌과학의 발달로 그 심오한 경지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의학으로 신체의 변화 효과까지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교의 인간관인 오온설을 다시 과학적으로 격의해 보자. 오온이 가장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를 최고의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지수로 나타내는 것이다. 즉 몸과 마음이 가장 수승한 상태를 불성지수Buddhanature Quotient가 최고점에 이룬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불성지수는 色=PQ(Physical Quotient), 受=EQ, 想=IQ, 行=BQ, 識=SQ이 어떻게 조화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창조영성이나 SQ는 개인적 차원의 수행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들과의 유기적인 영성, 즉 관계영성을 통한 전인적 인간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다. 서구에서의 영성 연구는 자신의 성찰을 통한 사회 전체와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탐구를 도외시하지 않고 오

히려 반성과 함께 새롭게 조화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과학시대 수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내면의 성찰과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종교전통은 국내 관계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연구보다는 서구인들의 관심에 의한 연구가 지금까지 더 많이 이루어져왔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동양 사상과 과학은 전혀 다른 영역의 차원이라고 인식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동양철학 전공자들(100명) 및 인문사회 연구자들(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양철학 전공자들과 인문 사회 연구자들의 약 80%가 동양철학이 현대문명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타학문과의 대화 부족, 현대적 해석에 있어서의 소극성, 대중과의 호흡 부족, 서구 중심주의'등을 현안으로 지적하였다.² 위의 응답 중에서 '현대적 해석에 있어서의 소극성'이나 '서구 중심주의'를 현안으로 지적했다는 점은, 동양의 학자들이 늘 서구 문명의 폐단으로 과학문명을 주범으로 인식하고 동양의 문명을 그 대안으로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양의 학자들 스스로가 과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학시대 속에서 이제 동양의 종교 전통 또한 근대 문명의 폐단을 극복할 대안을 과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한 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성이라는 용어를 그리스도교, 또는 서구 중심적인 환경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선입관에서 벗어나 동양 종교 전통 안에서, 특히 불교 안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³ 그리스도교의 창조 영성은 불교의 연기적 사고와 유사점이 많다. 그리스도교가 개인 구원에서 전체적 구원을 지향하고 있는 점은 불교의 대승적 깨달음의 방향과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 서구 학자들은 불교와 도교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기계론적으로만 인식되던 인간에 대하여 총체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태학적 대안까지도 모색하고 있다.⁴ 즉 서구 학

2 박원재, <동양철학, 그 인식의 현주소를 묻는다>, 《오늘의 동양사상》 6호, 98~113쪽.

3 윤원철, <불교와 영성>, 《종교와 영성》, 한울, 1998, 26~27쪽.

자들은 과학적 탐구를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동양 사상과의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의 불교 학자들도 자연과학의 연구 성과에 무비판적인 부정적 시각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실증주의자 콩트가 지적한 대로 종교의 발달단계에서 과학이 종교의 기능을 대치한다는 과학 만능주의적 추론에 전적으로 동의하자는 것이 아니다. 불교는 20세기 이후 과학과의 만남을 통해 불교의 교리가 여러 면에서 오히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불교에 대한 과학적 해석은 불교의 가르침을 왜곡시킨다기보다 오히려 불교가 과학적 종교라는 점을 알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불교는 불교 교리의 과학적 해석의 단초를 열게 되며, 과학시대의 미래지향적 종교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2. 이 시대의 대승보살은 생태보살

1960년대부터 환경문제가 거론된 이래로 생태환경문제는 오늘날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며, 이러한 논의는 자연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정립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세계관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인류가 직면한 위기감이 다른 그 어느 시대보다도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인간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인류가 직면한 생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의 위기인 생태계의 파괴는 과학의 발달에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근대의 과학적 진보는 자연을 도구적 성격으로 파악한 서구의 자연관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서구의 자연관을 기초로 오늘날과 같은 기술문명을 이룩하였고, 이 과학 기술 문명은 불행히도 생태계의 위기를 야기했다

4 뇌과학과 불교의 질문과 대답을 다룬 《달라이 라마, 과학을 만나다》가 있으며, 현대 신경과학과 불교사상의 만남을 다룬 《마음이란 무엇인가》 등의 책자가 있다.

는 것이다. 물론 인간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의 남용과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는 것이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까?

과학은 현대 문명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지식이다. 과학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식을 확보하는 유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고대에는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의 질서를 신화적으로 설명했던 반면, 오늘날 현대과학에서는 15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주 생성의 기원에 대한 탐구를 시작으로 하여 그 우주 내에 형성된 에너지 속에서 생명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 또한 생명에 대한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존재와 우주신화에 대하여 상상과 환상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신화화Entmythologisierung 과정을 수행했으며,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구체화된 세계 속에서 인간의 모습과 우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⁵

이러한 점에서 과학은 도구나 수단이 아닌 우주 내에서 인간의 존재성을 파악하게 해주는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가치중립적인 과학이 도구적으로만 활용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욕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질적 여건이 열악했던 과거에는 인간이 자신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는데 급급하였으며 오랫동안 기술적 능력의 한계 속에서 불편과 빈곤에 시달려야 했다.

과학적 기술 능력을 갖게 된 인간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이 기술을 마음껏 활용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자본주의의 시장논리가 결합되면 어느 정도 욕구가 채워진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의 재창출을 위한 새로운 욕구는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 이 새로운 욕구가 생기면 생길수록 인간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몰두한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과학은 인류를 위하여 비판적, 창조적 지성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설정된 목적을 완성할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5 장희익, 《삶과 온생명》, 솔, 1999, 222~242쪽 참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의 발달에 따라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파괴되었다기보다, 생태문제는 오히려 과학 기술과 접목된 인간욕망의 극대화에서 그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과학에 대해 이중적인 사고를 해왔다. 놀라운 과학문명의 혜택을 백분 누리면서도 생태문제에 대해 언급하면 늘 과학을 주범으로 지목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과학과 종교가 늘 대치해왔지만, 이제는 종교와 과학이 만나야 한다.

현대 과학시대에 생태문제 또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해결하려는 기계론적 발상이 대두되고 있지만 생태문제의 주된 원인이 인간의 욕망의 극대화에서 야기된 것인 만큼, 과학시대에 생태문제는 종교와 과학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생태문제의 근본원인은 인간의 욕망이기에 욕망의 절제에 대한 종교적 해결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菩薩(Bodhisattva)이다. 보살에게 있어서 깨달음Bodhi은 삶Satta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보살은 현재의 삶을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철저하게 구현하는 지혜를 지녔다. 일반적으로 보살이 가는 길로서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을 내세운다. 이 말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하여 깨달음의 길과 중생교화의 길을 따로 떼어 이분법적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이 둘을 시간적으로 떼어서 선후가 있는 것처럼 보면 보살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보살은 상구보리上求菩提하고 난 후에 하화중생下化衆生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구보리上求菩提란 곧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즉 ‘깨달음을 얻는 길이란 곧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와 하나로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존재 즉 중생이란 살아있는 것이든 아니면 생명이 없는 것이든 간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환경이란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환경’이라는 말은 사실 ‘중생’이란 말과 다를 것이 없다. ‘중생’이란 대승불교에서 일체 유정과 무정을 모두 칭하는 말이다.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를 총칭하는 말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다. 보살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이 자신과 떼어 수 없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 존재이다. 그는 모든 존재를 차별하지 않고 그 모든 존재와 연기론적인 관계를 회복한다. 이 회복이 공간적으로 실현된 곳이 바로 정토이다. 즉 생태적 관계가 회복된 공간이다. 대승보살의 이상理想은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생태적 가치관과 생태적 인간관과 일치한다. 대승보살은 세계의 모든 현상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깨달은 존재이다. 모든 사물이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 즉 생물과 무생물에까지 사랑을 보낸다. 이와 같은 지혜의 실천에서 오는 끝없는 사랑이 자비maitri-karūṇa이다. 자비는 불교의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기본윤리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존재 사이에 기본이 되는 생태윤리이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성의 상실과 가치관의 전도, 개인주의의 피폐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는 인간성의 회복에 있다. 인간성의 회복은 불교의 연기법에 따른, 모든 삼라만상이 자신과 유기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결국 불교의 목표인 인격의 완성은 바로 나와 이웃이 동일체라는 것을 깨닫고 무한한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곧 나 자신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온 세계를 빈곤과 무지와 괴로움이 없는 이상 세계, 즉 생태적으로 온전한 불국토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승 보살적인 삶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해서 생태보살이 가야할 길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⁶ 생태보살은 자신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있는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과 생태적으로 일치된 삶을 실천하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생태보살은 어떻게 자신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들과 일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대승보살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완성하게 하는 길이 여섯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이다. 바라밀Pāramitā의 뜻이 완성인 것으로 보아 육바라밀은 여섯 가지 완성되어야 할 보살의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 보살의 수행을 생태불교적으로 살펴보자. 생태보살의

6 최종석, <보살과 의인의 현대적 구원관 비교>, 《불교연구》 28집, 248쪽.

수행으로 해석하여 보기로 한다.

생태보살이 완성해야 할 삶의 양식樣式으로서 먼저 보시布施를 들 수 있다. 보시는 ‘준다’는 말이다. 무엇을 준다는 것은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 생태보살은 이러한 관계성을 여실하게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때가 되면 흘러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바로 보시라고 말할 수 있다. 마치 흐르는 물이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것처럼, 보시는 모든 관계들이 살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하는 생명의 원리인 것이다. 보시를 통해서 모든 존재와의 연대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극복하는 ‘더불어 사는 삶’은 바로 보시를 통하여 구현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인간의 욕망을 소유의 방향으로만 투사시킬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 열려 있는 삶으로 지향하는 보살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데 이 욕망의 절제를 생태보살이 가야할 두 번째 삶의 양식인 인욕忍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자신과 전존재가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고, 이 대전제 앞에서 자신을 극소화시키는 삶을 지킬 줄 아는 것을 지계持戒라고 할 수 있다. 정진精進은 이러한 생태적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태보살은 쉽없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노력으로 생태보살은 마침내 모든 존재와 원만한 관계성을 회복하여 평화로운 삶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선정禪定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생태보살의 완성되어져야 할 삶의 양식은 모두 모든 존재가 나와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혜智慧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시대의 해탈은 바로 생태보살의 무분별적인 생태적 실천에 있다.⁷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삶이란 모든 존재와 원만한 관계성을 회복하여 평화로운 삶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모든 존재가 나와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혜智慧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곧 나 자신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생태적으

7 위의 글, 248쪽.

로 완성을 이루는 것을 생태적 정도의 완성이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불교계의 생태환경운동이 교리와 과학이 조화를 이루면서 생명운동, 생명평화운동으로 나아갈 때, 과학시대의 생태적 차방정도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 과학과 불교가 생태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만남을 모색할 때 생태적 과학격의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토론자 발표

2

4차산업혁명시대 종교와 종교학의 필요성

김재영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현재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종교학과 교수, 현재 국제종교학회 저널 *Religion* 편집위원, 한국 종교학회장 역임, 대표저술로는 《종교심리학의 이해》 등이 있다.

요약문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종교와 종교학은 여전히 그 위세가 줄지 않고 두 가지 방향으로 지속되어 갈 것이다. 하나는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대답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기'로 인식하여 종교적인 러다이트Luddite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I.

4차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에 대한 논의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2016년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1938~)의 《4차산업혁명》 도서 출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도서의 중심 주제들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조명한 다보스포럼Davos Forum이다. 물론 그 이후 진전된 논의들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4차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들과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과장과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은 글로벌 ‘신드롬’ 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하여 지구촌 어느 곳이든 그 영향력을 막강하게 발휘하고 있다. 마치 그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지 않을 만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신드롬’ 현상이 파생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들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후발 주자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두 주자로 선점하여 이끌려는 준비를 민첩하게 하고 있다. 정부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대한민국이 나아가 할 미래의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 동안 보여주었던 움직임과 달리 학계의 움직임도 민첩한 반응을 보이면서 나름대로 속도를 내고 있다. 슈바프의 책을 비롯하여 여러 외국 도서들이 번역되었고 국내 연구자들의 책들도 이미 출판되어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학술대회가 특정 전공과 상관없이 곳곳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필자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이번 연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종교의 기능에 대한 차별된 인식이다. 과학적 맥락에서 종종 비판적으로 제기된 이전의 주장과

구별되게, 대부분의 논의들이 전하려는 요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종교는 다른 것으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것은 삶의 다른 영역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 진단을 내렸던 것과 달리 종교는 종국적으로 사멸하고 말 것이라는 종교의 미래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4차산업혁명의 논의가 부각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종교는 과학과 기술의 영향력 하에 비판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단골 메뉴 중의 하나였다. 일반적으로 지적했던 비판은 종교의 기복성과 폭력성이다. 종교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 종교의 역기능을 고발하는 것으로 그 논의를 끝맺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순기능까지도 “망상현상”으로 일반화하는데 그 위험성이 놓여 있다.

종교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 오류 현상은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전염성을 내포하고 있어 개인이나 집단의 분노와 증오심을 담아내는 창구역할로 그릇된 편견을 끊임없이 생산한다. 동서양 어느 곳에서나 예외 없이 종교들 간의 상호 잘못된 편견은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고 수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지만 기회가 닿으면 다시 편견의 나락으로 떨어져 그 이해의 폭이 닫혀버리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된 편견으로 고착된다면 그러한 편견을 제거할 수 있는 성찰적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굳이 종교사를 언급할 필요 없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돌적 종교현상만 직시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II.

물론, 종교의 세계는 편견의 물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극단적 편견의 물결이 거칠게 일어나는 종교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나아가려는 반대의 물결이 일어나기도 한

다. 이를테면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충돌의 현실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종교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삶의 가치를 실천하려는 '선한' 개인과 공동체가 놀라운 정도로 각각의 종교전통에서 움트고 있다. 특히, 유럽이나 서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각각 필요한 연구조직을 구성하여 이론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그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조직이 특정 종교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과거와 달리 해당 종교의 신자나 학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종교의 신자나 학자를 비롯하여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러한 개방성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4차산업혁명의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이러한 모습은 서구 대학의 종교연구와 관련된 학과나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의식의 변화를 이끌었다. 무엇보다도 연구주체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고 조금만 찾아보면 투명하게 많은 사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으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지 않는 종교연구는 혹독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연구주체들이 이제는 종교와 관련된 어떤 글을 쓰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글을 작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움직임은 그들의 개별종교와 다른 종교들에 대한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태도를 갖게 해주었다. 사실, 특정 종교에 신앙인으로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들의 종교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경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를테면 불자들 중에서 불교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종교들에 대한 논의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깊이 있게 연구하려는 연구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 연구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불교를 비롯하여 다른 종교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기독교를 연구하려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서구의 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이미 상식이 되었다. 종교학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늘 그래왔고 신학과나 신학대학에서도 불자이면서 불교연구나 이슬람 신자이면서 이슬람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없으면서 특정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를 초빙하는 경우가 예외적이지 않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에서는 불교,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를 해당종교인이 가르치게 된 경우는 이미 오래된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하버드 대학교 세계종교연구소 소장은 개신교 배경을 갖고 있는 탁월한 종교학자가 주로 임명되었던 것과 달리 가톨릭 예수회 소속 신부가 임명되어 오랜 시간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게다가, 하버드 대학교는 너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만 종교연구를 한다는 냉소적인 시선에 대한 비판을 비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기독교 복음주의 배경하에 그 현상을 연구한 연구자를 학장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더욱 파격적인 사실은 최근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 학장은 신종교New Religious Movements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를 신종교 운동과 19세기 북미 종교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서구의 이러한 변화는 주로 자유주의 계열 신학대학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적인 신학대학이나 연구단체에서도 과거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형식보다는 해당 종교연구자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거나 다양한 학술 모임에 직접 참여하여 심층적 이해를 추구해 나가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보수적이든 자유주의적이든 서구의 신학대학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 대한 태도는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종교 간의 차이점까지도 공정하게 서로 확인하면서 연구와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기존 종교 간의 만남이나 대화의 방향까지도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격을 주었다. 그러므로 최근에 발표되는 글들은 종교 간의 공통분모만을 집중적으로 밝혀나가는 데 끝을 두지 않고 차이점까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신선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차이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존적 긴장이 종교 간의 ‘프렌드쉽friendship’을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층적 종교연구를 수행하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명한 종교학자인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1916~2000)가 예리하

게 지적하였듯이 틀에 맞추려는 형식성의 대화보다는 자유롭게 내면의 얘기를 솔직히 나눌 수 있는 콜로키움colloquium 방식이 더욱 요청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의 환경이 더욱 확장되면 될수록 종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구의 종교현장이나 종교연구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존의 변화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더욱 구체적으로 상호 개방성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Ⅲ.

서구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종교현장의 변화는 한국의 종교현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꼼꼼히 검토하고 주목해야 할 모습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한국의 종교현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미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종교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호한'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특정 종교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들이나 연구자들은 해당종교에만 참여하지 않고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나 성직자 또는 연구자들과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스님과 불교연구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배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내용을 고백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불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교회 건물을 짓는 데 보시를 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성직자가 재교육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화된 공부를 위해 해당 종교의 대학으로 가기보다는 종교를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종교학 전공이나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종교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종교와 종교인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만을 보이지 않고 때로는 종교인들을 만나서 다양한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구하려는 열망을 표현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지적해 볼 수 있는 모습은 사이버 공간이나 매스미디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종교현장이다. 현재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동료 종교인들의 눈을 의식할 필요 없이 쉽게 페이스북과 유튜브 동영상 혹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다른 종교를 배우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접속을 통해서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나 성직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 경험으로 인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종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종교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성직자가 종교에 대한 그릇된 얘기를 하게 되면 해당 종교인들은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라는 요청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같은 종교의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다른 종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종단연구자나 성직자에게 그대로 순응하기보다는 잘못을 정직히 지적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의 종교현장은 서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종교연구의 상아탑 환경은 서구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종단의 학계 현실은 글로벌 학계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차치하고 한국의 종교현장이 극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긴박한 변화에도 민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고질적인 “정체성”의 이름으로 방어와 경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약간의 예외적인 현상을 제외하고 일반 학계의 상황과 별반 다름없이 각 종단의 신학대학이나 불교대학의 교수들은 거의 대부분 특정 대학교 출신이다. 놀라울 정도로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지 말아야 할 곳에 오히려 더 많은 경계가 놓여있는 듯하다. 교수임용의 지원조건도 대부분 해당 종단의 성직자격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만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학에서 다른 종교전공자를 초빙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가톨릭 혹은 개신교 신학대학 혹은 불교대학에서는 해당종교인들이 교수로 임용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다른 종교인이 비슷한 전공을 연구하였다 고 할지라도 해당종교로의 개종을 하지 않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신학대학에서 분명 불교

나 세계 종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서양의 경우처럼 불교연구자나 다른 종교연구자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대로 불교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인을 교수로 임용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신학대학에서 불교 과목을 개설할 경우 불자가 그 과목을 담당하는 것이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서구의 학계에서는 이미 전통이 되었지만 한국의 상황에서는 과목개설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목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교인에게 부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점에서 불교대학의 경우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학계의 현실이 서구의 상황과 대조적으로 닫힌 상황이다 보니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교현상을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한 현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종교 간의 소통이나 대화도 학문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많은 경우, 대화를 진행하지만 행사위주의 '주례사 대화'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종교 간의 대화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살펴보다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연계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종교현장의 "중심"보다는 '주변' 그룹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종교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학문적이든 실천적이든 종교 간 대화의 폭을 확대하여 각각의 종교현장을 움직이는 다양한 그룹의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토대로 폭 넓은 연대감을 구축하는 일이다.

IV.

4차산업혁명의 영향이 가시화하면 할수록 한국을 비롯하여 글로벌 종교현실은 속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존의 종교연구도 단순히 종교 간의 상호 개방성의 차원을 넘어 종교연구의 새로운 변화를 극심하게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

히, 4차산업혁명이 몰고 올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종교의 모습을 담기 위해 종교연구가 중심을 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4차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궁극적 실재나 불멸에 대한 논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환경의 맥락 안에서 그러한 논의를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한 논의를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4차산업혁명의 초연결성과 초지능성 환경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경계까지도 무의미해지므로 성과속, 일상과 초일상, 초월과 현실 등과 같이 기존의 이원론적 논의보다는 서로 융합하고 통합시키려는 일원론적 논의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인간관이나 초월적 실재에 대한 이해를 과격적으로 수정하려는 논의이다. '인간과 기계의 결합humanoics'이 더욱 현실화 될 전망이어서, 인간의 생명, 죽음, 죽어감, 또는 불멸에 대한 이해도 기존의 대답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제는 인간과 초월의 영역까지도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어 궁극적 실재에 대한 물음도 인간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외적 초월에 강조점을 두기 보다는 인간과 결합된 내재적 초월을 더욱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한다.

두 번째 유형은 앞의 유형과는 반대로 4차산업혁명이 제공하는 새로운 환경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일종의 새로운 '러다이트Luddite' 종교운동 연구이다. 물론 이 운동을 이끌고 있는 주체들이 4차산업혁명을 부정한다고 해서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결코 아니다. 마치 원래 러다이트 운동의 주창자들이 기계혁명이 불러올 부정적 영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의 폐해를 깊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새로운 러다이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이 운동은 첫 번째 유형 보다 훨씬 큰 규모를 형성하면서 4차산업혁명의 폐단을 설득력 있게 고발하는 성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러다이트 운동에 대한 종교연구는 과거부터 신앙적 고백으로 물려받은 전통에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초점을 두고 그 논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구성해야 할 물음이나 그것의 폐단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겪게 될 실질적 경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종교연구이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화두는 인간의 삶에 희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비관적인 경험을 불러내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처럼 온 사회가 쉽 없이 4차산업혁명을 계속 부르짖는 곳에서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불안에 휩싸여 있는 듯하다. 특히 지금까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직업은 상당 부분 사라지는 반면,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직업은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복적으로 생산되면서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안도감을 많이 부풀리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더욱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너무 많이 미래에 대한 추측성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4차산업혁명이라는 '화두'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팽배해졌다.

4차산업혁명이 창출할 새로운 환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지구촌의 어떤 사회이든 4차산업혁명의 환경이 더욱 현실화되면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능력의 격차로 인해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빠트리지 않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전망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제시하였다. 그들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할 자기성찰, 자비, 용서, 습, 대화, 명상, 영성, 종교성, 돌봄, 배려, 윤리적 의식, 창의성이나 공감능력에 대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서양의 문명이나 문화의 뿌리인 종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최근 클라우드 슈바프는 다보스 포럼에 종교지도자들과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규 세션을 확대하여 '영감적인 지성 inspired intelligence'의 활동으로 종교와 종교 간의 대화는 4차산업혁명시대

에도 지속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V.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종전에 누리왔던 삶의 필요한 영역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부분 대체될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로 종교와 종교학은 여전히 그 존재감을 잃지 않고 지속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특히, 서구의 종교현장과 학계 그리고 한국의 종교현장에서 보여주었듯이 종교간의 연결지점은 더욱 활성화되어 기존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우주적 영성의 출현과 그 현상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대부분의 종교연구는 4차산업혁명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든, 부정하든, 그렇지 않으면 그 환경으로 인해 겪게 될 인간 주체들의 실존적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든 상관없이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세 방향을 포함하는 논의보다는 뚜렷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수립될 수 있는 논의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방향은 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프레임의 연구를 지향하고 있어 소수의 전문연구자들 이외에는 현장 종교인들과의 소통에서는 메울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할 것이다.

반면, 두 번째 방향은 첫 번째 방향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종교전통에 대한 강조가 다시 부각되기 때문에 종교현장과의 소통도 무난하지만 전통의 문제가 너무 강조되어 실존적 내면의 경험을 담아내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향은 앞의 두 방향과 달리 실존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고 있어 현장 종교인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돌봄과 의미를 강력히 부여할 수 있다. 사실, 종교현장에서는 앞의 두 방향보다 마지막 방향이 훨씬 더 효력을 보여줄 수 있어 종교와 종교학의 필요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므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종교

연구는 대부분 경우처럼 처음 두 방향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 말고 마지막 방향에 대한 심층적 이해로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자 발표

3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

- 정의正義가 중도中道이다 -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케 하라

이정배

목사, 현장아카데미 원장

감리교신학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스위스 바젤대학교 졸업(조직신학 전공), 감리교신학대학에서 30년 재직 후 명예퇴직. 현 현장(顯藏)아카데미 원장, ICE(국제기후종교시민 네트워크) 상임대표, NCK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장

요약문

모든 종교는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하지만 현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상징된다. 한마디로 부정의가 현실이 된 것이다. 깨어진 조화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종교의 존재 이유라 하겠다.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이며 하느님 나라이다.

글에 앞서

다음 예화로 본 글을 시작해 본다. “옛적 어느 마을에 눈먼 장님과 걷지 못하는 앓은뱅이가 함께 살았다. 이들은 앓은뱅이의 눈을 통해 보았고 장님의 다리를 통해 함께 걸었으며 일했다. 다소 불편했으나 평화로운 일상을 살았다. 어느 순간, 볼 수 있는 눈을 지닌 앓은뱅이 마음에 욕심이 생겼다. 함께 일해 벌었으나 자기 몫을 더 챙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 지속된 탓에 걷지 못하는 이는 더욱 비대해졌고 보지 못하는 자는 한없이 여위어갔다. 어느 추운 겨울 날 예전처럼 극한 상태로 야윈 장님이 비대한 앓은뱅이를 업고 가다가 빙판에 넘어져 두 사람 모두 일어서질 못했고 얼어 죽고 말았다. 한사람은 너무 살찌서, 다른 이는 너무 힘없어서… 이들은 이렇게 함께 세상을 떠났다.”

1.

위 이야기는 신神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세기 첫 장의 설화를 상기시킨다. 신이 만든 처음 세상은 모든 것이 상호 의존된 보기에 참 좋은 곳이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참 좋다’고 환호했다. 자기가 지은 만물이 저마다 자기 역할하며 활동했기 때문이다. 신의 창조행위는 사실 자기 능력을 세상과 나눈 것이었다. 땅(바다)과 하늘을 갈라 곳곳에서 생명을 자라게 했기에 말이다. 심지어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겼던 까닭이다. 같은 땅일지라도 먹는 것을 달리했기에 인간과 짐승은 동일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었다. 저마다 씨를 뿌려 먹거나 절로 나는 것을 먹고 살았기에 말이다. 성서적 용어 ‘지배와 정복’이란 말은 본래 이런 뜻이었다. 성서는 인간을 하느님 형상Imago Dei이라 불렀다. 본래 이 말은 신이 세상을 지속적으로 창조, 유지 시키듯 인간 역시 그 역할을 본분으로 삼으란 취지였다. 인간이 그 역할을 못하면 악당이라 불렀고(시편 104편) 삶의

공간에서 쫓겨 날 수도 있었다. 한마디로 하느님의 환호를 지속시키라는 책임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안식일 역시 이런 책임, 말을 바꾸면 ‘하느님의 정의’를 축하하는 날이어야 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런 세상을 믿었고 따랐다. 원복(Original Blessing)의 상태를 축하한 것이다. 이는 원죄를 앞세웠던 종래의 신학(어거스틴)과는 크게 변별된다.

2.

이런 설화가 만들어져 고백된 특별한 정황이 있다. 바빌론 포로기(BC 586~) 시절 함께 잡혀갔던 제사장들이 그 지역 속 창조설화(길가메시 서사시)를 보고 만든 것이다. 보고 배웠으나 크게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하느님 권능을 강조했고 왕만이 아니라 여남(女男) 존재 각각을 신적형상이라 했으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본 것이다. 이런 고백이 종살이하던 민족, 미래를 빼앗긴 민족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놀랍다. 고된 노예 삶 탓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나 이들은 세상을 정의롭게 지은 하느님을 믿은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 종살이를 나태, 무책임, 교만, 즉 자신들 죄 탓으로 여겼다. 다소 늦게 형성된 아담과 하와(뱀)의 이야기는 하느님 정의를 파괴한 인간의 실상을 적시한다. 신(神)/인(人)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역시 해체됨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하느님 보기 좋은 세상, 곧 하느님 정의가 끝나버린 현실을 적시했다.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런 세상 된 것을 후회했고 이를 홍수로 벌했다. 하느님 정의를 파괴한 세상을 파멸시키고자 한 것이다. 어감이 좋지 않으나 일종의 ‘신적 폭력’이라 하겠다. 이후에도 성서 곳곳에서 신적 폭력이 등장한다. 하지만 오로지 하느님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이다. 물론 신화적 언어일 것이나 방점은 하느님 정의에 찍혀있다. 실상 기독교 창조신앙의 본질을 대홍수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 인간 잘못으로 언젠가 창조가 혼돈으로 되돌아 갈수 있기에 말이다. 그럼에도 신적 폭력은 사랑의 다른 말일 수 있다. 새로운 세상 창조를 위해 사람(노아)과 각각의 종자(씨앗)를 남겨두었던 까닭이다.

3.

노아와 함께 시작된 새 세상, 그 유지 존속을 위해 신神은 인간에게 두 가지를 지키라 했다. 사람들 눈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 것과 동물을 피채로 먹지 말라(창9:1-7)는 것이었다. 전자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 곧 정의의 감각일 것이며 후자는 자연과의 형평성, 생태적 차원을 일컫는다. 이 두 조건이 하느님 환호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였다. 이를 위해 인간은 존재해야 한다. 하느님 정의가 유지될 시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두 조건은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함께 작동한다. 함께 지켜지거나 함께 깨지거나 할 것이다. 이후 성서는 이 두 조건이 지켜지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을 기록해 놓았다. 흔히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원原역사(태고사)적 의미로 수용한다. 인류 모두에게 뜻을 제공하는 보편적 신화처럼 독해하라는 뜻이다. 원죄이후 인간 세상은 창조된 본성들 즉 궁극성, 관계성을 잃어버렸다. 한마디로 타락인 것이다. 이로부터 기독교(성서)는 우발성의 세상, 인간이 만든 역사적 현실과 투쟁하고 갈등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 관계성이 깨진 세상, 극도로 부유해진 집단과 자포자기에 이른 가난한 다수가 갈등하는 세상에서 하느님 정의를 선포하는 일이 중요했다. 이 과정에서 신적 폭력도 종종 행해졌다. 거듭 말하지만 신적 폭력은 궁극적으로 신적 사랑이기도 하다. 신/구약성서 몇 곳에서 그 예를 찾고자 한다.

4.

주지하듯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얻었고 그곳에 정주하게 되었다. 일종의 약탈이겠으나 유랑자 유대인의 시각에서 쓰여졌기에 축복이라 한다. 여하튼 그곳서 12지파 사람들에게 골고루 땅이 분배되었고 평등한 관계 하에서 새 삶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유권이 바뀌게 되었고 빈자들이 속출했다. 심지어 동족끼리 종으로 사고 팔리는 일까지 생겼다. 이자를 내지 못한 탓이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질 것을 염려한 신은

제사 신적 폭력을 행사했다. 일방적으로 희년禧年을 선포한 것이다. 땅을 분배 받고 경작한지 7년씩 7년이 되는 다음 해, 즉 50년째에 이르러 땅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라는 명령이다. 땅도 쉬고 사람의 멍에 일체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법이었다. 이것을 이후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의義라 불렀다. 일종의 토지 공개념의 뜻을 지녔다 할 것이다. 무수한 반발이 있었을 것이다. 이후 성서에 희년에 대한이야기가 반복되어 서술되지 않았다. 그만큼 힘겨웠다는 반증일 수 있겠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거듭 이런 원칙을 갖고 왕권에 도전했고 그 곁에 머문 제사장 그룹을 압박했다. 가난한 자의 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자 하나님의 의義라고 선포한 것이다. '하느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오로지 의義를 원한다'고 했다. 희년 법은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법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 의義였고 창조세계가 지속될 수 있는 원리였기에 성서는 이런 신적 폭력을 거듭 강요했다. 그렇기에 거듭 강조되었으나 하느님 의는 세상 법을 능가할 수밖에 없다. 세상 법으로 '참 좋다'라는 하느님의 환호를 지속시킬 수 없는 탓이다.

5.

이런 선상에서 예수를 이해할 수 있겠다. 주지하듯 예수탄생에 초자연적 의미가 덧붙여졌다. 예수 선재설(요한)과 성령 수태설이 그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은 이를 달리 해석한다. 자신을 하느님과 같이 보는 예수의 자의식 그리고 그의 하늘나라 사상은 자기 가르침이 '체제 밖 사유'인 것을 적시한 것이다. 체제 안에서 체제를 바꾸는 것이 한없이 힘겹다. 그렇기에 예수는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뤄지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 체제 밖의 사유를 갖고서 체제를 뒤 흔들라 한 것이다. 체제가 만든 굵은 길을 곧게 하고 움푹한 곳을 메우는 일을 자신의 첫 과제라 선포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은총'의 핵심의미다. 체제 밖 사유가 체제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때 체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가난을 부추기며 부자를 더욱 배불리는 사회를 일컫는다. 제국에게 군사, 경제적으로 주권을 빼앗긴 현실, 대기

업(?)처럼 되어버린 성전에 종교세를 바쳐야 공동체 생활(구원)을 보장받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겠다. 하지만 예수는 정치, 종교적으로 인간을 다시 주체로 내세웠다.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다고 선포한 것이다. 제국과 종교로부터 인간을 다시 구출키 위함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란 기도 역시 빼앗긴 이들에게 전한 메시지였다. 하지만 이 길은 비폭력적이어야 옳다. 예수가 체제 밖 사유로서 선포한 하늘나라의 비유들 - 포도원과 잔치의 비유 - 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첫 비유에서 예수는 포도원에 늦게 일하러 온 자에게도 동일 품삯을 주었고 하늘나라를 이와 같다고 말하였다. 체제 안에서는 생각할 수 없겠으나 일용할 양식을 염려하는 하느님 정의의 시각에서는 마땅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는 자신의 잔치에 '되값을 능력이 없는 자'를 초대할 것을 주문했다. 되로 주고 말로 받고자 하는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허나 예수의 종교는 이런 인과성을 벗는 일이었다. 그만큼 세상이 기울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바로 은총, 체제 밖 사유로서 하느님 의義가 반드시 필요했다.

6.

다메섹 체험이후 바울에게도 전혀 다른 삶이 찾아왔다. 예수와 같은 일종의 체제 밖 사유였다. 지금껏 그는 가부장제 하의 남성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 유대의 율법학자로, 헬라 철학의 대가로서의 삶을 살았었다. 그런 그에게 전혀 다른 삶이 주어졌고 그 경험 하에서 로마서를 집필할 수 있었다. 예컨대 로마서에 여성 동역자들 9명 이름이 기록된 것만 보아도 가부장적 체제하에서는 대단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을 전면 부정했다. 긴 세월 동안 헬라의 지혜가 작동했었고, 그를 사상적으로 잇는 로마법이 세상을 지배했으며 자신을 선민選民이라 여길 만큼 유대인의 율법이 존재했으나 이들 모두가 결국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 저마다 물욕에 빠져 욕심꾸러기 된 현실, 도착적인 성적 현실을 열거하면서 말이다. 탐진치의 현실을 확대 재생산시킨 앞선 지혜, 이

성, 법 등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세상 전체의 총체적 부정이라 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신학자 칼 바르트가 로마서를 갖고 새 세계를 열고자 했던 것도 이해할 만하다. 목하 우리가 경험하듯 법조차 흥정대상이 된 현실에서 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법관의 영명(英名)이 'Justice'인 것을 생각할 때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을 보여준다. 우리도 지금 현실을 총체적으로 부정해야 될 상황에 처해있다. 적폐청산이란 말이 그래서 유효하다. 물론 헬라의 지혜, 유대 율법, 로마의 체제가 부분적으로 유효할 것이나 그것으로 세상을 구할 수 없다면 총체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바울은 이점에서 '하느님의 義'가 새롭게 나타났음을 선포했다. 그것만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것이라 믿은 것이다. 말을 바꾸면 지금껏 세상에 정의는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무용한 법과 철학 그리고 윤리를 내치라는 것이다. 다시 하느님 의義는 법을 능가한다는 고백이다. 이것 역시 하느님 폭력의 다른 표현이겠다.

7.

그렇다면 새롭게 나타난 하느님의 의義 그것은 무엇일까? 어찌 그것이 부정한 세상을 구원할 은총이 되는 것일까? 실제로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일까? 필자에게도 물음이 이어진다. 종교적 답이 현실에서도 답이 될 것인지 많이 궁금하다. 지금껏 하느님 의義가 세상에서 실현된 바가 없다. 어느 특정한 시점, 종말에서나 가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데리다 같은 철학자는 차연 개념을 사용하여 답의 미뤄짐을 말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위는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느님 형상을 한 인간의 책무라면 말이다. 어떤 신학자는 정의의 완성은 사랑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정의와 사랑의 관계를 다음처럼 설명하였다. 컵의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컵 밖으로 물을 흘러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이다. 여기서 가득찬 물은 정의일 것이고 흘러넘치는 물은 사랑이겠다. 사랑만이 정의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앞서 보았듯이 하느님 의義는 은총이자 사랑이 분명하다. 그것이 폭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사랑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법과 맞서는 일도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임해야 한다. 난민을 내치고 이주 노동자 인권유린을 묵인하며 약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실정법에 대해 저항하는 것-무법적 정의-이 하느님의 의의이자 사랑이다.

8.

하지만 성서는 폭력을 금한다. 하느님 폭력의 본질이 사랑인 탓이다. 비폭력적 방식으로 체제 밖 사유, 은총을 실현시키라 명한다. 이런 삶을 일컬어 그리스도 안의 존재Sein in Christo라 했다. 여기서 다시 바울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의 삶과 사상이 지금 이 시대의 좌파 철학자들 사이에서 세상을 구할 이치로서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보편성-정의의 다른 말이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까닭이다. 지금껏 서구적 보편(동일)성에 저항하는 개별 주체성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차이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보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철학자들은 다메섹 체험 이후의 바울에게서 그 단초, 에토스를 찾았다. 주지하듯 바울은 유대인이나 유대인을 포기했고, 지혜자였으나 지혜자인 것을 버렸으며 로마 시민권 자였지만 로마법을 버렸다. ‘마치 ~가 아닌 듯’(As if not...) 이 살았던 존재였다. 자유 했으나 모두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된 존재라 할 것이다(고전9:19절 이하). 그로써 바울은 누구에게나 그 누구처럼 되는 삶을 살아냈다. 성서는 이것을 하느님 의의가 나타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라 했다. 이것이 법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종교적인 비폭력성의 방식이다. 바울은 이런 의의를 갖고서 로마와는 다른 제국을 만들기를 원했다. 새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지금은 자폐증 환자처럼 교회 내에 갇혀 있지만 말이다. 하라리는 《호모 테우스》에서 2050년에 이르면 불사, 불멸, 행복이 주성장 산업이 가시화 될 것이라 했다. 소위 포스트휴먼으로 불리는 기계인간, 호모 테우스의 출현으로 돈 없는 호모 사피엔스가 무력화 될 것을 예상한 것이다. 기계 인간과 그렇지 못한 자연인의 차이가 인간과 동물의 종차만큼이나 크다고 했다. 4차원의 시대란 바로 호모사피엔스가 무력화 되고 부정의가 극대화되는 시점이란 것이다. 하라리는 종교에 대해 이렇게 충고했다. 제도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고 이런 흐름과 맞설 수 있는 힘(영성)을 키우라고 말이다. 결국 21세기 후반도 부정의가 지배할 것이다. 지금껏 말한 ‘하느님 의의는 이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그렇게 믿고 싶다.

9.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느님의 것이 실상 모두의 것이란 뜻을 갖듯이 하느님 의의 또한 모두의 바람이자 소망이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촛불 정신은 하느님 의의와 근접할 수 있겠다. 촛불을 통해 정의의 보편성이 어느 정도 들어났다. 하느님 의에 근거해서 민주당에게 요구할 것이 하나있다. 어느 정치학자가 말했듯이 1인 1표제도란 한 표가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5, 60퍼센트가 사표로 처리된다 하니 민주 대의제란 말이 가당치 않다. 표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민주당은 통 큰 정치를 해야 한다. 각 정당이 받은 표만큼 힘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낼 때 세상은 달라 질 여지가 생길 수 있다. 평화기운이 감도는 이 땅에서 분단체제가 만든 남남갈등이 평화체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종교, 특히 기독교가 앞장서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인간이 만든 벽을 부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 했으니 그 성령 또한 하느님의 폭력일 수밖에 없다. 기독교에게 하나님의 폭력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하느님 형상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다.

〈고요한소리〉 경전읽기·책읽기 모임 안내

· 서울지부 니까야 경전읽기·〈고요한소리〉 책읽기 모임

시간: 월요일 오후 6시 반~8시 반

 금요일 오후 1시 반~3시 반

 목요일 오후 1~3시

장소: (사)고요한소리 서울 사무실(02-739-6328,725-3408)

· 대구지부 〈고요한소리〉 책읽기

시간: 화요일 오전 10시 정진

 화요일 오후 3시

장소: (사)고요한소리 대구 사무실(053-755-6035)

· 대전지부 니까야 경전읽기, 〈고요한소리〉 책읽기

시간: 일요일 오전 10~12시

장소: (사)고요한소리 대전 사무실(042-488-1689)

· 부산지부 정진

시간: 화요일 10시

장소: (사)고요한소리 부산 사무실(051-513-6650)

· 〈고요한소리〉 회원으로 가입하시려면,

이름, 전화번호, 우편물 받을 주소, e-mail 주소를 〈고요한소리〉 서울 사무실에 알려주십시오. (전화: 02-739-6328, 02-725-3408)

· 회원에게는 〈고요한소리〉에서 출간하는 도서를 보내드리고, 법회나 모임·행사 등 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회비, 후원금, 책값 등을 보내실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 006-01-0689-346

우리은행 004-007718-01-001

농협 032-01-175056

우체국 010579-01-002831

예금주 (사)고요한소리

마음을 맑게 하는 <고요한소리> 도서

금구의 말씀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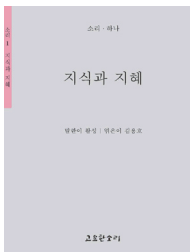


하나 염신경

현음 스님 옮김

《중부》 119경인 몸에 관한 마음챙김의 지침서로,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몸을, 요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대로, 작용하고 있는 대로 고찰함으로써 삼매와 열반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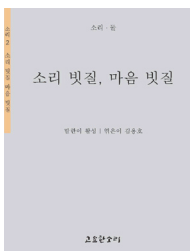
소리 시리즈



소리1 지식과 지혜

말한이 활성 | 엮은이 김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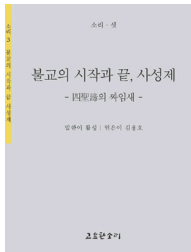
지식에 속하는 識과 想의 작용을 극복하고 갈애를 제거하는 지혜의 작용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



소리2 소리 빚질, 마음 빚질

말한이 활성 | 엮은이 김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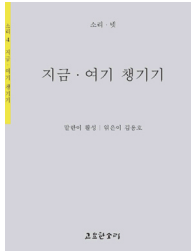
세상만사를 법문으로 듣는 연습으로 보아야 하며, 구한말의 명창 이 날치 선생의 음악관을 비유로써 마음을 다루는 법을 설명한다. 나아가서 모든 문명이 왜 마음 다루기에 실패했는지를 밝히고, 불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까지 정연하게 설명해주시는 말씀.



소리3 불교의 시작과 끝, 사성제 - 四聖諦의 짜임새

말한이 화성 | 엮은이 김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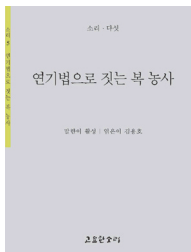
불교의 핵심인 사성제에 감춰진 역동적 흐름, 정교한 짜임새, 구조의 진리성, 법과 도의 양축을 밝게 드러내 설명해 주는 책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사성제에 대한 기존의 타성적 이해에서 벗어나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소리4 지금 · 여기 챙기기

말한이 화성 | 엮은이 김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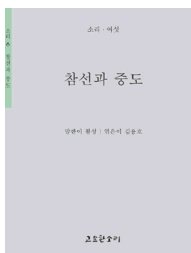
팔정도야 모든 수행의 지침 내지 나침반이며, 인습적 교설이 아닌 실제적 수행의 적용과제로 다루어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서 수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념에 관하여 입체적 심층적 분석하고 있다. 독자들은 왜 "지금·여기"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소리5 연기법으로 짓는 복농사

말한이 화성 | 엮은이 김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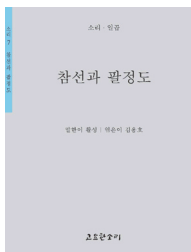
복 농사를 짓는 데에는 어떤 밭에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가? 복의 밭은 삼보三寶로 연기법에 대한 이해와 연기법에 따라서 생활하는 태도요, 복의 씨는 팔정도의 서두인 정견正見으로 정직, 성실, 겸양을 지니는 것이다. 팔정도를 걷는 것이 복의 가꿈이다.



소리6 참선과 중도

말한이 화성 | 엮은이 김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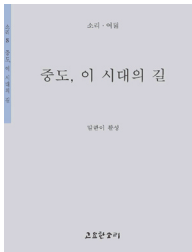
참선은 바른 자세로 상 높음을 그치고 마노로 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사띠 챙기기가다. 자세부터 시작해서 경험 대상까지 중도로 일관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 참선 공부다. '그 험난한 흐름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신다. '나는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느리게 지척거리지도 않았기에 건널 수 있었다.'



소리7 참선과 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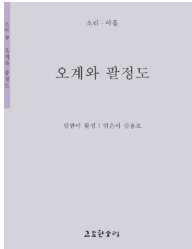
말한이 화성 | 엮은이 김용호

법의 핵심은 중도요, 팔정도이다. 우리는 팔정도를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띠(정념)를 닦는다. 계는 청정함이요, 정은 고요함이고, 혜는 밝음이다. 삼학을 구축한 것이 중도이다. 계·정·혜를 구축하라. 어떻게 구축하는가? 팔정도를 닦아라. 왜 팔정도를 닦아야 하는가? 십이연기를 관하면 그 해답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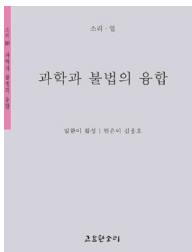
소리8 중도, 이 시대의 길 말한이 활성화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에 가끔 일어나는 류類의 변혁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대하고 심각한 변혁기이다. 인류의 생존이 지구의 존속과 연관된 이러한 대 위기의 변혁기를 감당해 내려면 진리 차원의 '신新 가치관'이 필요하다. 진리로서의 사성제, 그 핵심인 팔정도, 그 실천으로서의 중도(중중의 걸음)가 이 시대의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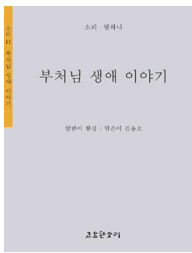
소리9 오계와 팔정도 말한이 활성화 | 역은이 김용호

오계는 생명을 해치지 않기, 흠치지 않기, 성적 불륜을 행하지 않기, 그릇된 말을 하지 않기, 취하지 않기로 팔정도의 실천으로서 설해졌다. 바른 공부를 위해서는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하고 오계는 단순한 계율이 아니라 팔정도를 걷는 일환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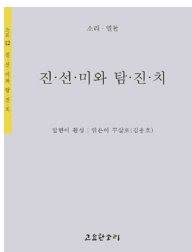
소리10 과학과 불법의 융합 말한이 활성화 | 역은이 김용호

과학과 불법은 둘 다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세계를 보는 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학은 오근에 잡히는 감각 세계만을 대상으로 '어떻게'를 묻지만 불교는 제 육근인 의근에 두고 감각 세계를 넘어 법계와 진리를 대상으로 '왜'라고 묻는다. 불법은 '왜'를 묻는 반야에 입각하므로 과학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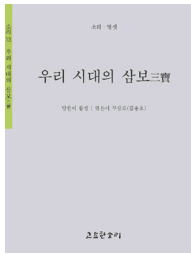
소리11 부처님 생애 이야기 말한이 활성화 | 역은이 김용호

부처님 생애는 해탈이 있고, 해탈로 가는 길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이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법을 가르치셨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애로써 완벽한 시범을 보이셨다. 팔십 평생이 법 그 자체였던 것이다.



소리12 진선미와 탐진치 말한이 활성화 | 역은이 김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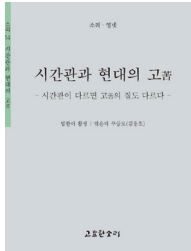
우리의 향상에 필요한 가치관인 진선미가 따로 떨어지면 선과 미의 상대성의 절대화로 인해 탐진치를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류가 발견한 위대한 가치인 진선미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 바로 탐진치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정혜를 닦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소리13 우리 시대의 삼보三寶

말한이 활성 | 엮은이 김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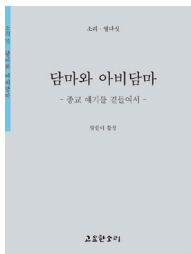
‘부처님은 법을 제정해서 퍼신 분’이므로 불보이다. 법이란 부처님이 ‘열반의 방향을 제시해주신 가르침’이므로 법보이다. 승가는 ‘부처님의 법을 받아서 실천 수행하는 길을 걷는 이들의 모임’이므로 승보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귀한 유산인 법보를 중심으로 삼보를 균형 있게 모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소리14 시간관과 현대의 고통 - 시간관이 다르면 고의 질도 다르다

말한이 활성 | 엮은이 김용호

서양에서는 하느님이 존재를 만들 때 시간도 시작되었고 언젠가 대파멸·종말이 오는데, 그때는 시간도 끝난다는 기독교적 시간관으로 인해 심층무의식에 근원적 불안감이 자리잡게 되었다. 시간관의 차이로 인해 기독교와 불교가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서 차이가 생겼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고는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의 분상分上에서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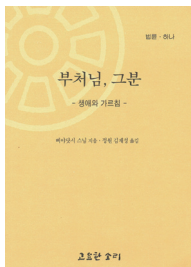


소리15 담마와 아비담마 - 종교 얘기를 곁들여서

말한이 활성

법法, 담마란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주시기 위해 ‘부처님 당신이 깨달으신 지혜의 소식’을 중생이 이해할 수 있는, 중생이 쓰는 언어로 담아낸 진리의 소식’이고 아비담마란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활용하고 또 적용할 때, 그 분상에서의 담마’이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새로운 아비담마가 절실히 요청되는 엄중한 시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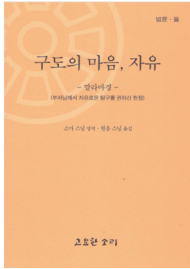
법륜 시리즈



법륜1 부처님, 그분 - 생애와 가르침

빠야닷시 스님 지음 | 정원 김재성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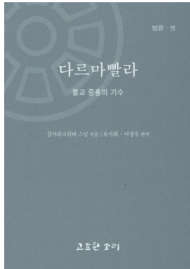
빠알리 원전에 입각해서 부처님 그분의 생애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그 근본 가르침을 요약한 책



법륜2 구도의 마음, 자유 - 깔라마 경

소마 스님 영역 | 현음 스님 옮김

외부의 권위·전통·다수의 추세 등에 따라 생각을 정하지 말고 자유로운 의문과 탐구의 정신으로 스스로 통찰력을 길러 나가도록 권장하신 부처님의 현장.



법륜3 다르마팔라 - 불교중흥의 기수

상가라크쉬따 스님 지음 | 류시화 · 이경숙 역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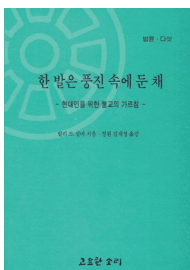
어둠 속에 한 줄기 서광처럼 나타나 기독교화되어 가던 20세기 스리랑카에 불교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고 마하보디 협회와 마하보디 저널을 창간한 대 원력 보살의 일대기



법륜4 존재의 세 가지 속성-삼법인(무상·고·무아)

오 에이치 드 에이 위제세께라 지음 | 이지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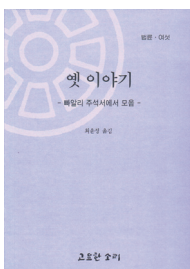
최고의 영적 완성을 성취하는 열쇠인 무상·고·무아의 삼법인三法印의 근본 진리를 설명한 본격적 해설서.



법륜5 한 발은 풍진 속에 둔 채 - 현대인을 위한 불교의 가르침

릴리 드 실바 지음 | 정원 김재성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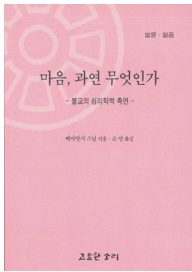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이 이 각박한 현실을 공부의 장場으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항별로 차근차근하게 논술한 길잡이 글.



법륜6 옛 이야기 - 빠알리 주석서에서 모음

최윤정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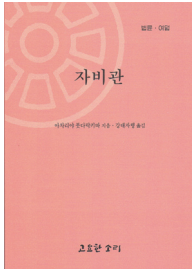
옛날 남방의 '보통 사람들'이 깨달음에 이르던 정경을 그림같이 아름답게 펼쳐보여 주는 감동적인 얘기들.



법륜7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빠야닷시 스님 지음 | 소만 율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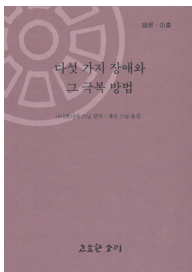
우리를 유혹해서 노예 상태로 묶어 두려는 모든 악들을 버리고 선을 계발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더 높은 고매한 삶의 영역으로 향하게 하는 수행 지침서.



법륜8 자비관

아차리야 붓다락키따 지음 | 강대자행 율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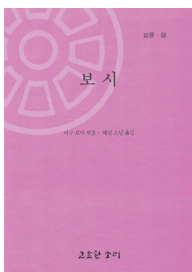
현대의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따metta만이 밝힐 수 있다고 한, 자비의 철학과 수행법을 밝힌 책.



법륜9 다섯 가지 장애와 그 극복 방법

나나쁘니까 스님 편역 | 재연 스님 율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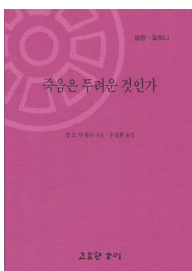
수행자의 마음을 덮어 항상 의지를 마비시키고 통찰력을 무디게 하는 다섯 가지의 수행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지침서.



법륜10 보시

비구 보디 역음 | 헤인 스님 율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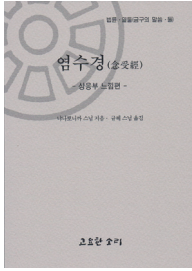
불교의 중요한 덕목인 '보시'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해 본 책으로 누구나 잘 아는 듯이 여기고 있는 '보시행'을 네 사람의 불교인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음미해 보는 동시에 불법 수행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법륜11 죽음은 두려운 것인가

엠 오 시 월슈 지음 | 우철환 율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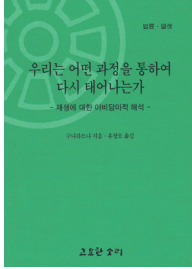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북한 주제인 죽음,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조만간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 간결하지만 이 문제를 기독교적, 유물론적, 불교적 관점에서 다룬 책.



법륜12 염수경 - 상응부 느낌편

나나쁘니까 스님 지음 | 규혜 스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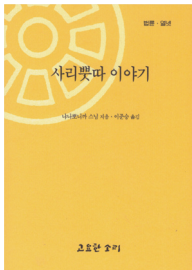
이 책은 빠알리경 《상응부》 제4권 가운데 〈수상응품〉을 번역한 것이다. 느낌은 촉을 조건으로 일어나고 그치는데 이 느낌은 세 가지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느낌, 이것을 일러 느낌이라 말하며, 팔정도의 수행으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느낌의 소멸로 이르는 길에 대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이다.



법륜13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가 - 재생에 대한 아비담마적 해석

구나라뜨나 지음 | 유창모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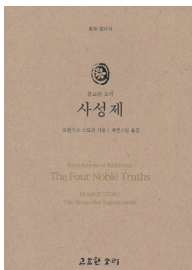
윤회론에 대한 불교의 관점을 깊이 이해하고 다시 태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과 불교적 논리 체계를 탐구한 책이다.



법륜14 사리뿔따 이야기

나나쁘니까 스님 지음 | 이준승 옮김

지혜 제일로 알려진 사리뿔따 존자의 생애를 짧지만 집약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번 생애 고의 끝에 이르하고자 하는 수행자들에게 귀감이 되며 본보기를 제시하여 주는 글이다.



법륜15 불교의 초석 - 사성제

프란시스 스토리 지음 | 재연스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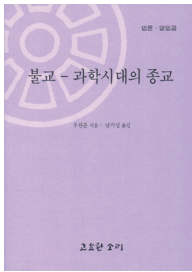
불교의 교리, 사성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요약이며 불교의 초석이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모든 종교, 철학, 과학, 윤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넘어서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법륜16 칠각지

빠야닷시 스님 지음 | 전채린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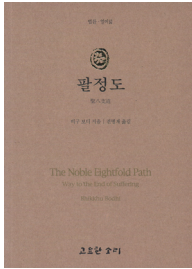
이 책은 깨달음과 관련된 통찰이나 지혜를 이끌어 내며, 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부수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일곱 가지 인자 즉, 칠각지七覺支를 설명하고 있다.



법륜17 불교 - 과학시대의 종교

우찬툐 지음 | 남기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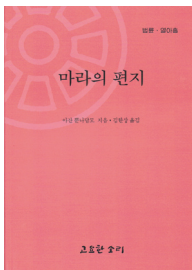
미국에 본부를 둔 '과학시대의 종교연구소'가 1958년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세계불교도우의회 우찬툐회장의 발표전문을 번역한 글이다. 불교가 현대 첨단 과학 지식과 하나도 모순되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삶에도 과학이 줄 수 없는 빛을 던져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륜18 팔정도

비구 보디 지음 | 전병재 옮김

비구 보디 스님의 풍부한 철학적 사유와 수행으로 해석된 팔정도에 관한 글이다. 정견을 시작으로,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성팔지도(聖八支道)가 그를 실제로 종식할 수 있는 길임을 보여준다.



법륜19 마라의 편지

아잔 뽀나담모 지음 | 김한상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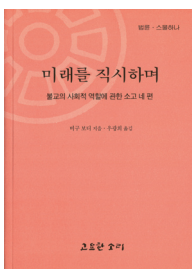
인간들의 해탈을 방해하는 10가지 요소들을 마라의 군대들에 비유하여 현실감있게 설명하고 있는 책.



법륜20 생태위기 - 그 해법에 대한 불교적 모색

클라스 샌델 역음 | 우천식 · 우광희 옮김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서 불교 철학의 몇몇 측면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각기 다른 사람이 집필한 불교의 자연관, 자연 접근방식, 환경 윤리 모색, 생태개발의 가능성을 통해 생태위기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륜21 미래를 직시하며

비구 보디 지음 | 우광희 옮김

불교적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붓다의 가르침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그를 위해 우선적으로 불교 내부의 개혁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비구보디 스님의 글

보리수잎 시리즈



보리수잎 영원한 올챙이

1 엠 오 시 월슈 지음 | 강대자행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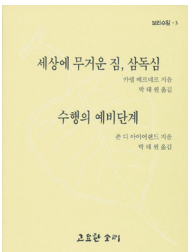
보리수 시리즈의 총론에 해당하는 글. 영원한 올챙이, 일상생활과 팔정도, 자기를 구출하기, 좌선하지 않고 선하는 법 등이 실림.



보리수잎 마음 길들이기

2 아잔 차 스님 지음 | 김용호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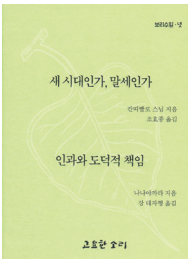
날뛰는 우리의 마음을 선정으로 이끄는 방법을 간명하게 설한 태국 아잔 차 스님의 법문.



보리수잎 세상에 무거운 짐, 삼독심

3 카렐 베르네르 지음 / 존 디 아이어랜드 지음 | 박태원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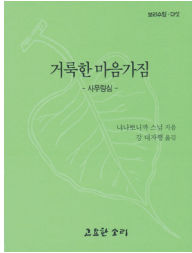
우리를 짓눌러 이 고해에 붙박는 '삼독심',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삼독심의 올바른 파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덧붙여 불교진리를 터득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를 다룬 '수행의 예비단계'가 실려 있음.



보리수잎 새 시대인가, 말세인가 / 인과와 도덕적 책임

4 칸띠빨로 스님 / 나나야까라 지음 | 조효종 / 강 대자행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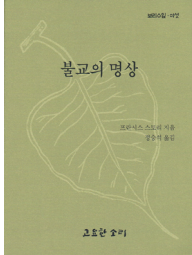
새 시대, 말세 두 극단으로 이해되는 격변기에서 불자들은 어떻게 생에 임해야 하는가, 또한 우리의 생을 엮고 있는 인과법과 도덕적 책임감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인과와 도덕적 책임' 두편이 실려 있음



보리수원 기록한 마음가짐 - 사무량심

5 나나뽀니까 스님 지음 | 강대자행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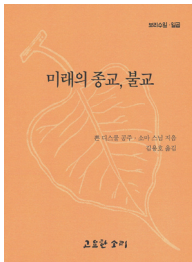
사랑함, 더불어 아파함, 더불어 기뻐함, 평온한 마음가짐을 지님으로써 거룩하고 신성한 주처에 머물게 되는 수행법, 이 수행의 궁극에는 훌륭하고 고결한 인품이 계발되면서 청정한 해탈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나나뽀니까 스님의 사무량심과 해설.



보리수원 불교의 명상

6 프란시스 스토리 지음 | 정승석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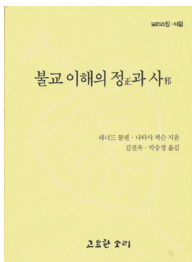
불교 명상의 핵심인 수식관, 삼매수행, 위빠사나(관법)수행, 자애관 수행법을 소개한 근본불교 수행 안내서



보리수원 미래의 종교, 불교

7 뽀 디스쿨 공주, 소마 스님 지음 | 김용호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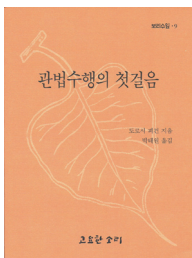
과학은 나날이 발전하건만 인류는 묵은 종교에 의지해 왔다. 현대 세계 속에 투영되어 더욱 진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종교가 있으니,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미래의 종교, 불교이다.



보리수원 불교 이해의 정교사론

8 레너드 볼렌 · 나타샤 잭슨 지음 | 김진옥 · 박승정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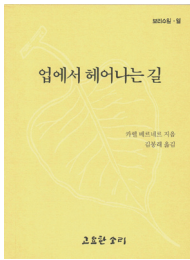
부처님의 일대교설 싸아사나sāsana와 실천 논리인 사성제, 팔정도의 해설서



보리수원 관법 수행의 첫 걸음

9 도로시 피건 지음 | 박태원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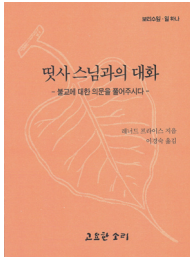
60대 후반의 재가 신자가 심장병과 합병증으로 죽음을 선고 받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스리랑카에서 근본 불교에 귀의, 그 수행법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고 환희를 경험하게 된 실천, 수행의 기록.



보리수잎 업에서 헤어나는 길

10 카렐 베르네르 지음 | 김봉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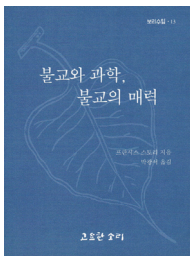
업의 법칙과 정념 수행의 연관성을 깨달음으로써 업에서 헤어날 수 있는 해탈의 길을 설명하는 글.



보리수잎 밧사 스님과 대화

11 레너드 프라이스 지음 | 이경숙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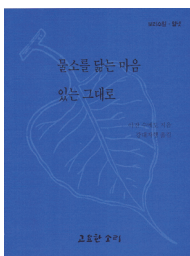
자신은 왜 불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가를 묻는 미국인 프렌티스에게 해주신 밧사 스님의 법문. 불교에 대한 몇가지 근본적 의문을 가시게 해주는 대화체의 글



보리수잎 불교와 과학 / 불교의 매력

13 프란시스 스토리 지음 | 박광서 옮김

불교는 과학의 모든 원리를 수용하고 앞으로 그것이 나아갈 방향까지도 제시하는 가르침임을 설명한 책



보리수잎 물소를 닮는 마음

14 아잔 수메도 지음 | 강대자행 옮김

물소처럼 넉넉한 참을성을 기르는 가운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공부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수행의 길을 찾도록 돕는 책.



보리수잎 참 고향은 어디인가

15 아잔 차 스님 지음 | 박용길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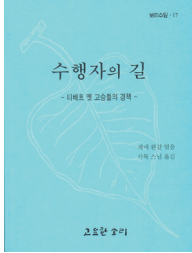
임종을 앞둔 한 노신도에게 사라져가는 육신을 지혜의 눈으로 바로 보도록 가르치는 아잔 차 스님의 법문.



보리수잎 무아의 명상

16 케마 스님 지음 | 조효종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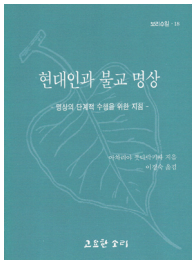
“...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정신적 스승도 일찍이 무아를 것처럼 역설 했던 적은 없었다. 정말 부처님이 것처럼 강조하셨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그 문제를 입에 올려 볼 엄두라도 낼 수 있었겠는가?” - 본문 중에서



보리수잎 수행자의 길

17 게세 완갈 엮음 | 각목 스님 옮김

정신적 수행의 길에는 갖가지 자기 기만의 가능성이 충만해 있음을 통렬히 지적해 주는 옛 티베트 고승들의 간절한 수행 안내서.



보리수잎 현대인과 불교명상

18 아차리야 붓다락키따 지음 | 이경숙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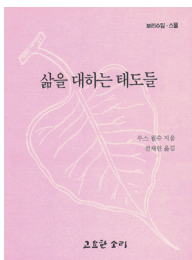
현대의 정신적 긴장과 마음의 때를 제거시키는 적극적 발걸음으로써 불교 명상을 가르친 공부 지침서.



보리수잎 자유의 맛

19 비구 보디 지음 | 강대자행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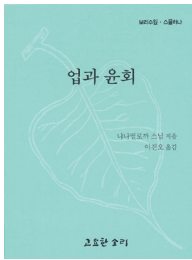
마음속 자유의 영역을 더욱 더 넓히고 싶어하는 인류의 요청에 대한 부처님의 해답.



보리수잎 삶을 대하는 태도들

20 루스 월슈 지음 | 전채린 옮김

이 글은 여섯 명의 실제 인물을 소개하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불교도적 눈을 통해서 관찰해 본 책.



보리수잎 업과 윤회

21 나나뫼로까 스님 지음 | 이진오 옮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운명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참으로 공평치 못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 같은 의문을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법에 비추어 설명한 책.



보리수잎 성지 순례의 길에서

22 수잔 엘바움 주틸라 지음 | 김한상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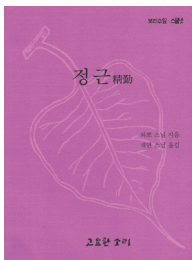
고파마 붓다께서 살다 가셨고 또한 몸소 법법을 가르치셨던 곳 - 룸비니, 보드가야, 사르나트, 사왓티와 라자가하, 쿠시나라 - 유서 깊은 이곳에서 그 분의 가르침을 닦는 여행길에 올라보길 ...



보리수잎 두려움과 슬픔을 느낄 때

23 니나 반 고르콥 지음 | 전채린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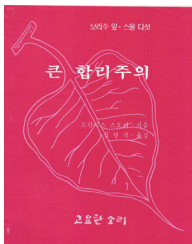
일상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에 관한 의문과 슬픔을 당한 친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해주는 서간체의 글.



보리수잎 정근精勤

24 와보 스님 지음 | 재연 스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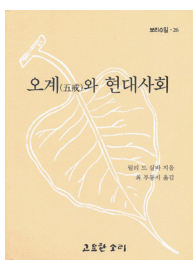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간곡히 이르노라.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다. 방일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 몸 받게 만드는 탐·진·치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고 정근하기를 당부하는 내용.



보리수잎 큰 합리주의

25 프란시스 스토리 지음 | 심영석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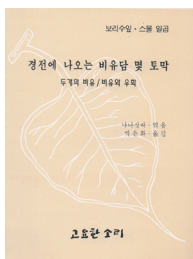
불교는 우리에게 신앙으로 믿으라고 강요한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인들에게 와 닿는 이유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불교는 더욱 넓은 합리주의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보리수일 오계와 현대사회

26 릴리 드 실바 지음 | 최부동지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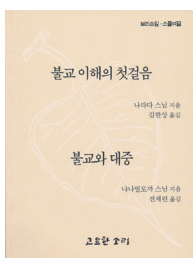
오계는 불교의 근본이 되는 도덕률이다. 실제로 재가불자들은 삼귀의와 더불어 오계를 일상생활에서 지켜왔고, 또한 법답게 삶을 꾸려 나가려면 반드시 이 오계를 다방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리수일 경전에 나오는 비유담 몇 토막

27 나나사따 역음 | 박은화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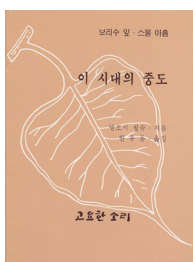
여기 실린 격언과 우화들은 BPS에서 출간한 보리수 일 No. B97로 일본불교 전교협회에서 발간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발췌한 것이다.



보리수일 불교 이해의 첫 걸음 / 불교와 대중

28 나라다 스님 지음 / 나나떨로까 스님 지음 | 김한상 옮김 / 전체 린 옮김 (Narada, Nanadilloka, Kimhansang, Jeoncheer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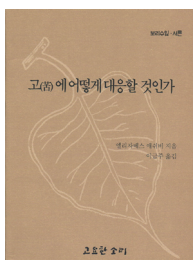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의 유일한 길을 자세히 설명하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체계이다. 불교를 수행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충실하게 쓴 글이다.



보리수일 이 시대의 중도

29 엠오시 월슈 지음 | 한유동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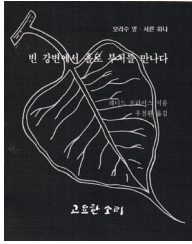
세상사 무슨 일이건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도(中道)로서 대처한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상업주의 시대의 중도를 찾아내고, 중도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보리수일 고(苦)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0 엘리자베스 애쉬비 지음 | 이금주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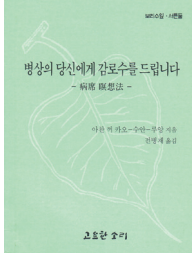
고(苦)의 여러가지 측면을 음미해보고 사람들이 고를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책.



보리수잎 빈 강변에서 홀로 부처를 만나다

31 L. 프라이스 지음 | 우철환 옮김

“불교는 광대한 가르침의 체계로서 서구권에 다가서고 있다”로 시작하는 배우이면서 작가로 활동하다가 출가한 레너드 프라이스 스님의 글로, 근본주의 불교, 미끼 달린 낚시바늘, 빈 강변에서 홀로 부처를 만나다, 사월과 십일월의 네 편의 글이 실려 있다.



보리수잎 병상의 당신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

32 아찬 꺼 카오-수안-루앙 지음 | 전병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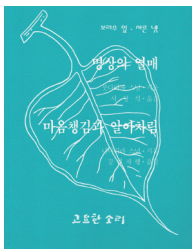
병들어 누워 있는 현실을 수행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삼아 깊은 통찰을 해나가는데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간절한 가르침.



보리수잎 해탈의 이정표

33 붓다다사 스님 지음 | 서형석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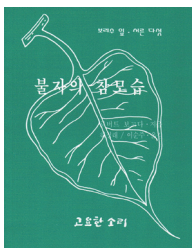
세간과 출세간, 열 가지 족쇄와 네 단계 성자, 열반의 경지 등 불교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으로, 사물의 본성을 보는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음미해 볼 만한 수행의 지침서.



보리수잎 명상의 열매 / 마음챙김과 알아차림

34 붓다다사 스님 지음 / 나나위라 스님 지음 | 서형석 옮김 / 강대자행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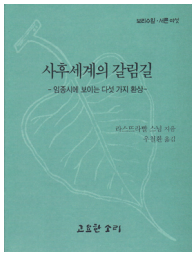
명상의 열매는 명상의 이익으로, 삶속에서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현법이익現法利益과 통찰력을 설명하고,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고 알아차림의 대상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보리수잎 불자의 참모습

35 로버트 보고다 지음 | 하정래/이순주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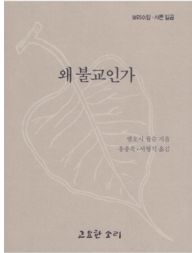
불교는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불자는 불법의 가르침이 널리 알려져 세상이 평안해지도록 노력하고, 불법이 살아서 일상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보리수원 사후세계의 갈림길

36 라스뜨라빨 스님 지음 | 우철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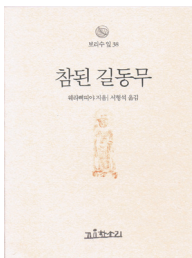
죽어가는 사람 곁에서 임종을 지킨 라스뜨라빨 스님의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임종 시 보이는 다섯가지 환상을 보고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 존재의 재생이 달라지며 오직 통찰수행만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아라한과에 도달할 수 있다.



보리수원 왜 불교인가

37 엠오시 월슈 지음 | 홍종욱 · 서형석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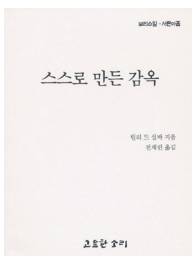
대승, 소승, 설일체유부, 상좌부 등 오늘날의 불교인식이 대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빠알리경전에 근거한 초기불교를 재인식하고 팔정도 중심의 근본불교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보리수원 참된 길동무

38 웨라삐띠야 지음 | 서형석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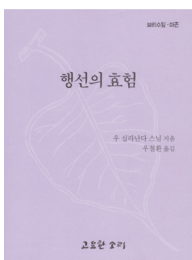
〈참된 길동무〉, 〈진리의 나무〉, 〈법의 눈〉, 〈라홀라의 아버지 유산〉, 〈진리실현의 향상의 길잡이〉, 〈사람답게 사는 것〉, 〈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술인 사념처〉, 〈자비희사를 통한 지혜의 길〉 등 일곱 편의 글이 정리되어 있다.



보리수원 스스로 만든 감옥

39 릴리 드 실바 지음 | 전채린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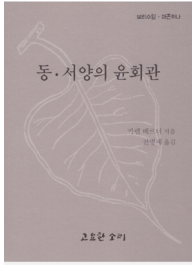
집착의 더미 오취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사설감옥으로 그것을 애착하고 그것에 거는 기대만큼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너에게 속하지 않는 오취온은 놓아버려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보리수원 행선의 효험

40 우 실라난다 스님 지음 | 우철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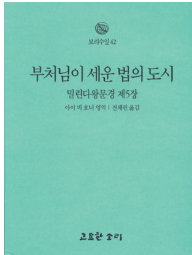
불교수행의 목적과 사물의 본성인 무상, 고, 무아를 파악하기 위한 점진적 수행과정으로 행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리수잎 동서양의 윤회관

41 카렐 베르너 지음 | 전병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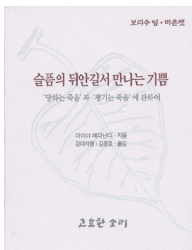
재생이라는 개념이 거의 모든 고대인들 사이에서 신앙화 되어 있었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그래서 재생의 개념이 서구인들에게도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헤드크레톤의 “재생에 관한 동서명문집”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서양의 철학자, 시인, 작가들의 재생에 대한 믿음과 발언 내용이 실려 있다



보리수잎 부처님이 세운 법의 도시 - 밀린다왕문경 제5장

42 아이 비 호너 영역 | 전채린 옮김

기원전 2세기 후반 인도의 밀린다왕과 나가세나 스님 사이의 문답을 담은 책 《밀린다왕문경》 제5장의 축약본으로 훌륭한 도시에 비추어 부처님의 법의 도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보리수잎 슬픔의 뒤편길에서 만나는 기쁨

43 아이야 메다난디 지음 | 강대자행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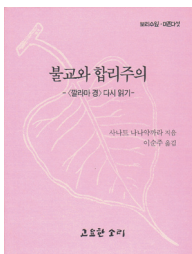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학살 피해자 가족인 비구니 아이야 메다난디의 “당하는 죽음과 챙기는 죽음”이라는 법문 내용으로 잔인한 죽음 과정을 극복한 사람들은 그것들의 본성과 생겨남과 끝남과 끝남에 이르는 길을 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보리수잎 출가의 길

44 게오르게 그림 지음 | 묘주스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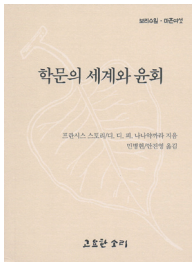
독일 최초기 불자 중 한 사람인 게오르게 그림의 저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성과 명상의 종교”에서 발췌한 글로서 ‘출가라는 승려의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



보리수잎 불교와 합리주의

45 사나트 나나약까라 지음 | 이순주 옮김

깔라마경을 근거로 하여, 많은 서양 학자들은 불교를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질문하기를 권하는 합리적 종교라고 칭하고 있다, 하지만 깔라마인들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을 읽어야 하며 이것을 불교 일반론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공부 과정의 본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법에 의지해야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보리수잎 학문의 세계와 윤희

46 란시스 스토리 · 디. 디. 피. 나나약까라 지음 | 민병현 · 안진영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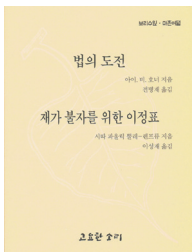
윤희는 상대적 진술이므로 무위법이라는 절대적 진실을 발견하려면 사변의 상대성을 떠나야 하며, 유전학에서의 불완전한 부분을 불교의 업이론으로 보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보리수잎 부처님의 실용적 가르침

47 존 디 아이어랜드 지음 | 전채린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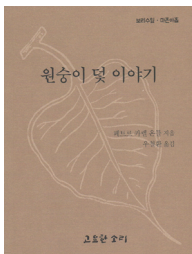
불교의 핵심사상인 사성제의 궁극적 이해인 열반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부처님의 다양하고 단계적인 실용적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보리수잎 법의 도전 / 재가불자를 위한 이정표

48 I. B. 호너 지음 / 시따 파울릭 뵈레-렌프류 지음 | 전병재 옮김 / 이성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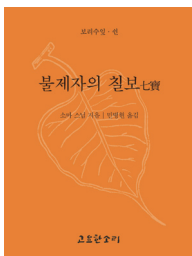
<법의 도전>, <재가 불자를 위한 이정표>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공유하며,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리수잎 원숭이 뗏 이야기

49 페트르 카렐 온틀 지음 | 우철환 옮김

욕심으로 대상을 움켜쥐면 고통이 발생한다는 사성제의 진리를 원숭이를 포획하는 뗏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서 놓아버림이 유일한 해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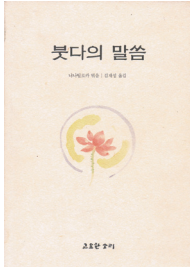


보리수잎 불제자의 칠보七寶

50 소마 스님 지음 | 민병현 옮김

부처님의 고귀한 제자들의 재산은 법에 대한 확신, 계행, 부끄러움, 두려움, 배움, 베풀 그리고 바른 견해이다. 불제자는 확신을 가지고 계행을 닦아 고타를 멀하게 이끌어주는 팔정도를 닦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바른 견해를 지녀 무상無常, 고쁨, 무아無我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을 통해서 지혜가 굳건히 확립된다.

단행본



붓다의 말씀

나나뎃로까 스님 엮음 | 김재성 옮김

이 책은 불교의 핵심적 내용들인 사성제, 팔정도를 중심으로 삼법인, 연기설, 오온설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수행의 지침서로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단법인 고요한소리 중도포럼 2018

중도_{中道}와 종교_{宗教} - 다시 돌아보다, 종교

2018년 10월 13일 펴냄

펴낸이	하주락 · 변영섭
펴낸곳	(사)고요한소리
등록번호	제1-879호 1989. 2. 1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47-5 (우 03145)
연락처	전화 02-739-6328 팩스 02-723-9804 부산지부 051-513-6650 대구지부 053-755-6035 대전지부 042-488-1689
홈페이지	www.calmvoice.org
이메일	calmvs@hanmail.net